소년단

1963. 10

(시)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 주는 나라

리 맥

아이들아!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노래하고 싶고나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

너희들은 정말
보람찬 시대에
보람찬 땅에 태여났구나.

꽃과 시내'물과
밝고 밝은 해'님을 노래하면서
너희들은 유치원에서 컸지.

그리고 열살 되던 해
소년단기 앞에서
너희들은 부럽고 부럽던
붉은 넥타이를 매였지.

정말 너희들에겐 부러운게 없구나
봄과 가을이 오면
양복점 누나들이 지은
새 교복이 차례지고
그리고 새 학년이 돌아오면
선생님이 새 책을 나누어 주지.

지주도 자본가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나라
밤에도 낮에도
천리마로 내달리는 우리 나라.

아이들아!
나는 너희들을 꽃에 비기고 싶구나.
꽃이라면 너희들은
온갖 꽃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

로동당과 원수님은
언제나 너희들을 위해
따뜻한 햇빛이 되여주지.

너희들이 길을 걸어 가고 있을 때
너희들이 잠 자고 있을 때
로동당과 원수님은
언제나 너희들을 위해
크나 큰 기쁨을 마련해 주지.

너희들은 이렇게 커 가는구나
자애로운 어머니 조국땅 우에
공장들도 너희들을 위해 솟아나고
뜨락또르도 너희들을 위해 달려가누나.

제일 좋은 것은
아이들에게 주는 나라
학생 소년 궁전도 너희들을 위해 일어서고
집집의 창문들도 너희들을 위해 반짝이누나.

아이들아!
너희들을 위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나라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언제나 앞길을 밝혀 주거니
너희들은 정말
세상에 부러운게 없구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3년 10호

내 용

표지 1 면—세상에 부럼 없어라!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 시절

(제 7 회)

강 효 순

그림 최 순천

원수님은 바위 우에 걸터앉아 솔'잎을 두 세 잎 뜯어 질근질근 씹으며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무들의 시선도 모두 대동강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모두 같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은 어느 때 쯤 되면 우리 나라에서 일본놈들을 모두 쫓아 버리고 만주로 갔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수 많은 동포들이 아름다운 우리 나라로 돌아 와서 잘 살 수 있을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룡훈이는 대동강만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대동강에 있는 숭어를 모두 잡아다가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응화는 오래간만에 만난 원수님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는데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응화는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혼자 싱긋 웃더니 코'살을 찡긋하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중국에서 살기 무섭지 않던?》

《무섭긴 뭐가 무서워.》

원수님은 정색하여 되물었습니다.

응화는 말을 할뚱말뚱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동무들도 어서 이야기를 하라는듯이 응화를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조선 아이들을 만나면 잡아 간다면서?》

이 말을 들은 원수님은 배를 그러쥐고 《하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한참 웃었습니다. 동무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야, 너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어디서 들었니?》 하고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응화는 귀밑까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던?》

《너희 할머니한테 들었니?》

《응! 너 그래서 평양에 놀러 가자구 해두 안 가댔구나.》

《알만하다. 너 요전에 뽈차기 하다가 중국 사람이 배추씨 팔라 온 것을 보구서 슬금슬금 달아 났댔지.》

동무들은 모두 한 마디씩 놀려 주었습니다. 이 바람에 응화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까불어대간? 양떡이라두 한 개씩 먹구 싶거든 더 까불어대라.》

응화는 노상 두 눈을 굴렸습니다. 이런 때는 욱믈러대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응화가 성을 내자 아이들은 그의 얼굴만 바라볼 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에 룡훈이가 꺼먼 눈을 심벅거리며 따졌습니다.

《너 그만 일에 성을 낼거야 있니, 전번에 너 문지기 섰다가 중국 사람이 나타나자 슬그머니 달아난 것은 사실 아니가.》

《배 아파서 돌아 갔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응화는 주먹을 불끈 쥐고 룡훈이 앞으로 대들었습니다.

《배 아파서?》

《그래서!》

《그럼 너희 할머니는 또 살풀이나 푸닥거리를 했겠구나.》

《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두 동무는 주먹들을 불끈 부르쥐고 막 붙을 판국이였습니다.

이 때에 원수님이 바위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달려 갔습니다.

《얘들아! 싸우겠거든 좀 본때 있게 붙어 봐라. 한바탕 구경해 보자!》

원수님은 두 아이를 떡 마주 세웠습니다. 막 붙으려고들 하는데 이렇게 하다나니 그들은 주먹들이 스르르 풀리고 말았습니다. 뿔쌈이라도 할 듯이 서로 바라 보던 그들은 픽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원수님도 웃고 동무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됐다. 이제는 거기들 앉아라. 글쎄 그런 일을 가지구 다툴 건 뭐란 말이냐. 코 홀리개들처럼 말이지!》

동무들은 모두 잔디 우에 앉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 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렇지만 그 말은 응화나 응화 할머니가 지어 낸 말은 아닐 거야. 지어 냈다면 일본놈들이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려구 꾸며 놓았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며 원수님은 동무들을 바라 보았습니다. 응화도 보아라는듯이 동무들을 쓱 둘러 보는 것이였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도 물론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은 몇놈을 제외하고는 다 좋은 사람들이야! 착하구 부지런하구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거든!》

《야, 너 정말 중국 애기나 좀 해 주렴아! 사실은 그걸 부탁하려다가 하마트라면 싸움판이 벌어질 번 했다.》

응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애기를 하려면 며칠이라두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중국 애기보다두 나는 조선 애기를 듣구 싶다. 너희들이 먼저 조선 애기를 해 다구.》

《조선 애기야 뭐 별게 있나, 그저 그렇지 뭐.》

《하기야 중국 애기두 뭐 별게 있나, 그저 그렇지.》

원수님은 시치미를 뚝 따고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러지 말구 한마디 해다구, 거기 사람들두 모두 포목 장사나 호떡 장사를 하니?》

《모두 장사만 하면 어쩌겠니, 거기두 농사하는 사람두 있구, 장사를 하는 사람두 있구, 물건을 만드는 사람두 있구, 관청에 다니는 사람두 있지, 그러구 놀구 먹는 놈두 있구, 말하자면 여기나 같지 뭐.》

《여기와 같아? 그럼 거기두 일본놈들이 있니?》

《있구 말구! 림강에만 해두 일본놈들이

우글우글한단다.》

《야 고 까마귀 같은 놈들이 거기까지 갔구나.》

《거기 뿐이겠니? 그놈들의 욕심 같아서야 온 천하를 모두 제 손 안에 넣구 싶어 할테인데.》

《중국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데 고놈들한테 못 견디나.》

《인구야 세계에서 제일 많지! 아마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마시는 물만 일본에 가서 내뿜어두 일본놈들은 홍수를 만나서 태평양으루 떠 내려 갈 게다.》

이 말에 아이들은 자즈러지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견딜가? 아마 일본놈들은 땅벌과 같이 사나운 모양이지?》

《땅벌이 사납다구 해두 한 번 쏘구는 죽게 마련이란다. 중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들이라구 언제나 눌려만 살겠니? 일본놈들을 제끼구 일어설 때가 있겠지.》

원수님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였습니다. 마치 눈 앞에 원쑤라도 있어 당장 쳐부실듯이 노려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옛날 우리 나라에는 장수들이 아주 많았다지.》 하고 룡훈이가 말했습니다.

《너 그럼 장수 얘기 한마디 해라.》 하고 원수님이 말했습니다.

《난 얘기 들을 줄은 알아두 할 줄은 몰라.》

《얘 그럼 내 한마디 하마.》

응화가 목을 닥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임진 왜란 때 말이야. 우리 나라 장수들은 일본놈들의 총에서는 물이 쭉쭉 나오게 하는 재주까지 있었다는 거야. 총에다 총알을 넣구 쏘아두 물만 쭉쭉 나가니까 그놈의 총이야 무엇에 쓰겠니.》

응화는 이렇게 말하며 동무들을 쓱 둘러 보았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재미 있다는듯이 응화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일본놈들이 우리 나라를 먹어 보려구 7년 간이나 와서 전쟁을 하다가 망해 돌아간 후에 말이야 우리 나라에서는 사명당이라는 사람을 일본에 보냈다는거야.》

《왜?》

《그놈들의 눈치를 보려고 말이지, 이를테면 또 우리 나라를 치려고 나오지나 않을가 해서 말이야, 고놈들은 물구두 못먹은 호랑이처럼 또 나와 볼려구 할 게 아니냐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사명당이 일본에 갔는데 고놈들은 사명당을 죽이려구 별별 짓을 다 했다는 거야.》

《어떻게?》

《한 번은 말이야, 구리루 집을 지어 놓구 사명당을 거기에 들어 가게 한 후에 밖으로 쇠를 잠그어 놓구 숯불로 밤새도록 달쿠었다는거야.》

《야! 정말 악독한 놈들이구나, 그래 어떻게 됐니?》 하고 룡훈이가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렴아, 글쎄 어떻게 됐겠니.》

동무들은 아무 대답 없이 응화를 바라볼 뿐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왜놈들은 사명당이 꼭 죽었으리라구 생각하구서 문을 열었더니 말이지.》

응화는 입을 쩍 벌리고 두 눈을 크게 뜨더니 동무들을 쓱 둘러 보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명당의 수염에는 고드름이 주룽주룽 달려 있구 이를〈떡떡〉 마주치면서 말이야 〈얘 이놈들아! 멀리서 온 손님을 이런 랭방에서 자게 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야, 고약한 놈들 같으니〉 하며 막 호령을 하는 바람에 말이야, 왜놈들은 사명당 앞에 무릎을 꿇구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는 거야.》

응화는 몸'짓과 손'짓으로 시늉을 척척 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야, 넌 학교에두 안 다니면서 어디서 그런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니?》 하고 누가 물었습니다.

《흥, 학교에 다녀야 그런 얘기를 듣나? 어른들이 얘기하는 데 가서 쓱 한 몫 끼면 별 재미 있는 이야기가 다 있어!》

《그럼 한 마디 더 하렴아.》

《단번에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 밥두 하루에 세번 먹어야지 나무 하러 간다구 해서 아침에 밥 세 그릇을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아마 배가 툭 터져 나가구 말 게다.》

《그렇지만 얘기는 배루 들어 가는 게 아니거든.》

《흥!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 응! 말하자면 머리가 터질 수 있지! 내 얘기를 듣구서 네 머리가 터졌다구 하면 아마 나는 배겨 나지 못 하게 될 게다.》

응화는 코'살을 찡긋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무 시물거리는 바람에 동무들은 어리'광대 구경이라도 하는듯이 재미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있었을가?》 하고 응화가 동무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사명당에 대한 얘기 말이야.》

《그 얘기는 네가 한 건데 누구에게 묻는 거야?》

《내가 하기는 했지만 누가 꾸며 낸 얘기 같거든!》

《어째서?》

《옛날에 그런 재주가 있다면 지금두 그런 재주가 있을 게 아니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손자에게, 손자는 증손자에게 배워 주어서 오늘까지 전해 올 게 아니냐 말이야!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왜놈들이 우리 나라에 발을 들여 놓겠니?》

《지금두 그런 재주를 가지구 있는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니?》 하고 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런 재주가 있다면 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겠니.》

《때를 기다리는지 모르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게 마련이거든, 농사하는 것도 그렇지 않던? 빨리 농사를 짓겠다구 얼음'장우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니. 겨울이 지나구 따뜻한 봄이 돌아 온 후에 씨를 뿌려야 싹두 나오구 열매를 열게 아니냐, 우리 나라 장수들두 때를 기다리면서 어느 깊은 산에 모여 싸움 련습을 하구 있을지두 모를 게 아니야.》

《때구 뭐구 내가 그런 재주가 있다면 오늘이라두 당장 오랑캐 같은 놈들을 모조리 쫓아 버리구 말겠다 얘.》

응화는 노상 팔소매를 쓱쓱 걷어 올리며 울러 멨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동시)

로동당은 고마와라!

김 광 섭

1

세상에 누가 힘이 센가
어떤 원쑤든 당해 내지 못 할
그런 힘 누가 지니였나
당! 우리 로동당이지.

왜놈들도 녹아 났다
오랜 세월 두고두고
조선 사람 영영 노예로 만들려다
항일 빨찌산의 된 주먹에 맞아…

고마와라!
로동당은 정말 고마와라
우리 집과 마을에, 온 나라에
행복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모두 천리마 태워 주시였다.

보라! 개성 방직 공장
일제 때엔 소년 형무소
리 승만 때 애국자들 갇혔던 감옥
오늘은 우리 누나 비단을 짠다.

2

세상에 누가 힘이 센가
어떤 원쑤든 덤비지 못 할
그런 힘 누가 지니였나
당! 우리 로동당이지.

미국놈들 떼지어
우리들 행복 앗아 내려다
로동당의 큰 주먹에 맞아
무릎 꿇고 항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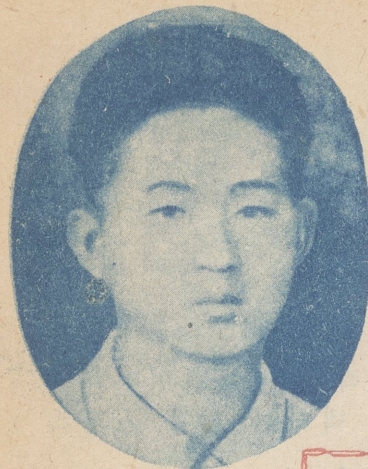
고마와라!
로동당은 정말 고마와라!
우리 소년단에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만을
모두 씩씩한 꽃봉오리로 키워 주신다.

보라! 자남산 아래
아흔 아홉 간 큰 집
지주 살던 기와집은
내 동생이 다니는 유치원

3

우리는 걸어 간다
발을 맞춰 땅을 구르며
구름 우에 나래를 편듯
높이 솟아 선 소년 회관으로

북을 울리며 노래 부르며
우리가 걷는 남대문 거리
거리는 움직이는 꽃밭이란다.
펄펄 붉은 넥타이 볼을 스친다

아! 고마와라!
가난한 사람들 살던 장'대동에
우리들 궁전소년회관 지어 주신
수상님의 어린 전사로 자라게 하는
로동당은 고마와라! 참 고마와라!

공화국 영웅 리 병모 형님

최 죽산

지난 7월 30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조국을 위하여,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형님에게 우리 인민의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두 어린 생명을 위하여

1962년 12월 7일이였다. 비류강은 맵짠 추위로 얼음으로 덮였다. 점심 식사 후 딴 볼 일로 좀 뒤늦게 혼자 송동 탈곡장으로 나가던 형님은 벼락바위 쪽으로 두 소년이 얼음을 타고 강을 건느는 것을 보자 문득 걸음을 멈춰 섰다.

(저 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저렇게 위험한 짓을 할가.)

형님의 가슴은 철렁하였다. 벼락바위 쪽 얼음은 아직 두텁게 얼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님은 달려 가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벌써 얼음은 꺼져 두 소년 중 한 소년은 강물에 빠져 들어 가는 것이였다. 또 련'이어 한 소년마저 빠져 들어 갔다.

《앗》 소리를 지르며 형님은 있는 힘을 다하여 그 곳으로 달려 갔다. 옷 벗을 생각도 할 새 없이 형님은 첨벙 물'속에 뛰여 들었다. 물은 세네 길이나 되였다.

형님은 두 소년 (선준, 정남)의 허리를 잡아 힘껏 얼음 우로 추켜 올렸다. 그러나 엷은 얼음'장은 우지직하고 꺼지면서 소년들은 다시 물'속에 들어 가 버렸다. 형님은 이렇게 몇 번 소년들을 얼음우로 떠밀어 올렸으나 그 때마다 실패를 했다. 얼음 물'속에서 싸우는 형님의 머리와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차츰 정신이 아찔해지며 힘이 진해 갔다.

(내가 두 소년을 살리지 못 한 채 맥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하나지만 소년들은 둘이 아닌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소년들을 살려야 한다.) 형님의 귀'전에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동무들 이 총을 받아 주오.》에서 자기는 희생되면서 총과 혁명 동지를 구원하며 웨치던 혁명 투사의 목소리가 쟁쟁 울리는 것만 같았다.

형님은 있는 힘을 다해 물'속에서 허우적이는 두 소년을 힘껏 얼음 우로 추켜 올렸다. 이리하여 두 소년은 구원되였다.

이 때 어디선가 농장원들이 뛰여 왔다.

그러나 두 소년을 구원한 형님은 그만 물 우에 다시 솟구쳐 오르지 못 하였던 것이다.

오직 당을 위하여

영웅 형님이 민청원의 영예를 안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직접 몸바쳐 싸운 기간은 겨우 22 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형님은 당에 무한히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바친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당은 사회주의 농촌의 기술 문화 혁명을 위하여 초, 고중 졸업생들을 농촌으로 불렀다.

형님은 자기와 같은 청년들이 농촌에 많을수록 우리의 농촌은 그만큼 더 빨리 변모되리라 생각했다.

당이 부르는 곳에 청춘의 희망이 있고 행복도 있다는 것을 안 형님은 1961년에 자진하여 농촌으로 진출하였다.

형님은 농촌에서 일하며 배워 기사, 기수가 되여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이바지하리라 결심했다.

형님은 일하면서도 조금도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농사'일에 피곤도 하였지만 계획한 학습은 하루도 어기지 않았다.

형님은 짬만 있으면 학습했다. 길 가면서도 책, 포전에서 일하다 휴식할 때도 책, 회의나 구경을 가서도 시작하기 전 토막 시간마다 책을 읽었다. 특히나 형님은 《조선 로동당 력사》와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열심히 학습했다.

형님은 빨간 뚜껑을 씌운 두툼한 책에다 150여 개의 회상기를 읽은 내용을 기록하고 자기가 느낀 점과 본받아야 할 점을 썼다. 이렇게 꾸준히 학습한 형님은 농촌에 나온 지 불과 1년만에 벌써 농산 기수 검정 시험에 6 과목이나 합격했다. 뿐만 아니라 민청원들 속에서 신망 높은 형님은 농촌에 나온 지 몇 개월 후에는 회경 마을의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형님은 당과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바치였다.

《네, 수행하겠습니다.》

이것은 형님이 당에서 주는 위임을 받을 때면 으례히 하는 말이다. 당에 무한히 충실하려는 형님은 당 앞에서 항상 이 한 마디 말 밖에 다른 말을 몰랐다.

어느 날 세포 위원장은 형님에게 중요한 문건을 군에 가져 갈 과업을 주었다. 문건에는 작업 반장의 수표를 받아야 했다.

형님은 수표 받으려 작업반장을 찾아 관리 위원회로 갔으나 반장은 없었다. 형님이 5 리나 되는 마을로 다시 돌아 왔을 때 반장은 뒤'골 포전에 가고 없었다. 형님은 선자리에서 돌아 섰다.

형님이 뒤'골 포전에 갔으나 반장은 방금 15 리나 되는 마목동으로 떠나고 없었다. 해는 벌써 뉘엿뉘엿 서산을 넘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진다고 당에서 주는 위임을 수행 못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형님은 마목동으로 달려 가서 작업반장을 찾아 수표를 받았다. 형님은 어둠을 무릅쓰고 25 리나 되는 읍으로 갔다. 돌아 올 때는 벌써 날이 밝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형님은 당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실하였다.

형님은 일할 때마다 그 일이 힘들고 쉬운 일인가를 재보려 하지 않았으며 식사하고 잠 잘 시간이 있고 없는 가를 생각지 않았다. 또한 일을 해도 그 일이 몇 로력 점수나 되겠는 가도 생각지 않았다. 이러한 형님은 밭김을 맬 때면 언제나 달리깨비, 돌나물, 속새풀 등을 협낭에 넣어 가지고 밭머리에 나와서는 파묻군 하였다. 남들이 쉬는 짬에도 형님은 거저 앉아 잊지 않았다.

발에 돌멩이 하나라도 보이면 주어 내야 마음이 시원했다.

파종 시기가 되면 형님의 주머니에는 항상 콩이 있었다. 쉴 참마다 형님은 논과 밭두렁에 콩을 심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가을이면 천여 평의 논과 밭두렁에서 콩을 거두었다.

형님에게 있어서는 비'물에 패인 밭머리의 홈채기를 메우는 것도, 아침 저녁 논밭을 돌아 보는 것도,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강에 다리를 놓는 것도 모두 자기 집'일처럼 여겼다. 이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형님을 가리켜 모두《마을의 살림'군》이라고 불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마을에는 경치 좋고 아름다운 송동이란 곳이 있다. 송동에는 백여 년 자란 소나무가 우거져 마을 사람들의 좋은 휴식터로 되였다.

그런데 작년 여름 장마'비에 땅이 패워 소나무 뿌리들이 드러났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 오던 형님은 이것을 보자 피곤도 잊고 밤 늦도록까지 소나무 뿌리에 흙을 덮어 주었다. 이처럼 형님은 자기 고향 마을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아끼고 사랑했다.

형님은 영광스러운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답게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섰고 당에서 주는 위임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였다.

작년 여름철에 있은 일이였다.

마을에서는 뽕을 많이 심고 누에를 길렀다. 그런데 갑자기 장마'비에 비류강물이 엄청나게 불어 뽕나무 밭에 물이 잠겼다. 다른 뽕나무 밭으로 가는 길도 물에 막혀 버렸다. 이리하여 누에게 먹일 뽕이 문제로 되였다. 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토의했다.

《그 일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송개'골에 가서 산뽕을 본 일이 있습니다.》

형님은 자진하여 이 일을 맡아 나섰다.

낮에 실수하여 부림'소에 받기워 피를 많이 흘린 오 철순 아버지에게 남몰래 자기 피를 200g나 수혈해 준 형님은 어림'증이 나서 누워야 할 형편이였다.

그러나 형님은 자기 몸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비가 억수로 퍼 붓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형님은 마을 청년들을 데리고 10 리나 되는 송개'골로 떠났다.

사위는 먹물을 뿌린듯 어두웠으나 형님은 어둠 속에서 손더듬으로 잎사귀를 따선 입으로 씹어 맛을 가려 가면서 끝내 산뽕을 찾아 냈다.

산뽕을 한짐 딴 형님은 민청원들과 함께 혁명 가요를 씩씩히 부르며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 왔다.

한평생 당에 충실하려는 형님은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먼저 자기보다 동무를 생각하며 위험한 일이라해도 발 벗고 나섰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은 작년 여름 장마'비에 비류강물이 넘어 들어 와 위험에 처하였을 때도 자기 집보다 먼저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리 덕실 동무네 집부터 뛰여 가 짐을 운반했다.

당에 들기 위한 꾸준한 준비를 하여 오던 형님은 드디여 작년 10 월 입당 청원서를 썼다.

《… 나는 당과 혁명이 요구한다면 나의 생명도 서슴 없이 바칠 굳은 각오를 다지면서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원으로 받아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러나 형님은 꿈에도 잊지 못 하던 당증을 품에 지녀 보지 못한 채 애석하게도 19 세의 짧은 생애를 마치였다.

형님의 소년단원 시절

당에 끝까지 충실하고 고향 마을과 인민을 사랑하여 온 형님은 소년단원 시절부터 훌륭한 소년으로 자라났다. 형님은 소년단 조직에서는 앞으로 민청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신 당시 평양 남산 고중에서의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소년단 생활에 충실하였다.

형님은 항상 어려서 소년단 생활을 잘 해야 장차 훌륭한 민청원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로동당원으로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민 학교 때부터 초중 3 학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최우등으로 공부하여 동무들 속에 신망이 높은 형님은 항상 분단 위원장으로 일했다.

형님은 분단을 화목하고 튼튼한 집단으로 꾸렸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조직의 위임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형님은 분단에서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제일 뒤떨어진 정식이를 자진하여 맡아 나섰다.

늙은 할머니와 둘이 생활하는 정식이는 륵막염을 앓고 난 후부터는 시름시름 다리를 앓으면서 자주 학교에 결석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정식이는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자연히 뒤떨어지게 되였다.

형님은 매일 정식의 학습을 돕기 위해 5 리나 떨어져 있는 방'골로 에돌아 다녔다. 정식이가 다리를 몹시 아파하는 날에는 그를 업고 학교로 왔다.

형님은 밤마다 정식의 학습을 도와 주었고《빨찌산의 딸》도 읽어 주며 아동단원들처럼 배우며 생활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정식의 학습 성적은 차츰 나아져 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등의 성적으로 2 학년으로 진급하게 되였다.

이처럼 동무들과 집단을 위해 힘쓴 형님이기에 누가 먼저 부르기 시작하였는지는 몰라도 분단에서는《우리 분단 위원장》이라고 모두 불렀다.

형님은 나라 재산과 인민의 재산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였다.

형님은 국가 재산과 공동 재산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밑천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한 장의 종이, 한 개의 벽돌이라도 아끼고 사랑했다.

형님은 군 도서관 혹은 학교 도서실에서 빌려 온 책이거나 동무들에게서 빌려 온 책을 읽을 때에도 꼭 하얀 종이로 뚜껑을 해 씌우고야 보았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형님이 마을에서 15 리쯤 떨어진 장림으로 아버지 심부름을 갈 때였다. 송은천을 건너 선 형님은 강'둑 밑에 쌓아 놓은 벽돌무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로동자 아저씨들이 며칠 전 하수도 작업을 하기 위해 실어 온 벽돌이 길'바닥에 널려져 있었다. 자동차와 달구지가 그 우를 지나 다녀서 벽돌들이 깨여진 것을 본 형님은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다.

(벽돌 한 장도 나라 재산이 아닌가!)

형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흩어진 벽돌을 주어 길 옆에 차곡차곡 보기 좋게 쌓아 놓았다.

《참 동무가 훌륭하오. 사소한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요.》길 가는 어른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고 모두 칭찬을 하며 함께 일'손을 도왔다.

이렇듯 형님은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소년단원의 의무를 훌륭히 지키여 참된 민청원으로 꾸준히 준비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형님은 불과 얼마 안 되는 민청 생활 기간에 그처럼 우리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영웅적 위훈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형님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영웅 형님의 고귀한 혁명 정신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남을 것이다.

★ (이것을 아십니까?) ★

단풍은 왜 들가요?

식물의 잎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작은 구멍들이 무수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은 이 구멍을 통해 탄산까스를 마시고 산소를 내보냅니다.

또한 식물은 이 구멍으로 수증기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작용을 식물의 증산작용이라 합니다.

단풍이 드는 것은 바로 이 증산 작용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면 식물들은 증산 작용을 잘 하지 못 합니다. 즉 낮에는 기온이 높아져 공기가 매마르기 때문에 잎으로부터 많은 수분을 증발하고 밤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뿌리들은 수분을 잘 빨아 올리지 못 하여 나무의 수분의 량이 적게 되며 차츰 잎에 수분도 적어져서 동화 작용과 함께 증산 작용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잎을 형성하고 있는 엽록소라는 성분이 점점 없어지고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물질에 따라 붉은 빛 혹은 누런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

본사 기자 김 준 규

《푸라다나스나무가 전한 이야기》

멀리 강화도가 바라 보이는 여기 개풍군 신서 중학교 운동장 한 켠에 소소리 높이 자란 두 그루의 푸라다나스나무가 서 있다.

따뜻한 어느 봄 날의 방과 후, 이 나무 밑에 둘러 앉은 아이들을 찾아 단 위원회에서는 그림극 묶음을 가지고 왔다.

단 위원회에서는 지금 지난 해 개성시 선죽 중학교를 방문하시고 학교를 잘 꾸리고 학교 주변에 나무도 많이 심어야 하며 어린이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야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더 훌륭히 실천하기 위하여 나무 심기에 떨쳐 나선 아이들에게 학교가 걸어 온 길을 이야기 해 주자는 것이다.

그림극 《푸라다나스나무가 전한 이야기》의 첫 장면은 지금 아이들이 둘러 앉은 이 두 그루의 푸라다나스나무를 그린 장면이였다.

《…이 두 그루의 푸라다나스나무는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하여 줍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림극 장면은 어느듯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이르렀다. 해설자는 미제 원쑤놈들과 괴뢰 《국방군》 놈들이 기여 들어 행패를 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리하여 우리 학교는 원쑤놈들의 〈병영〉으로 되였습니다. 보십시오, 원쑤놈들은 이렇게 학교 둘레의 나무를 마구 찍어다 때기도 하고 전호를 만드는데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드리 두 그루의 나무만은 채 찍어 없애지 못 한채 도망쳤습니다.》 해설자는 점점 흥분으로 떨리였다. 아이들도 두 주먹을 틀어 쥐였다.

《쫓겨 가는 원쑤놈들은 끝내 학교에 폭탄을 떨구고 소이탄을 뿌렸습니다.

동무들! 불타는 우리 학교를 보십시오. 교실도, 책상도, 걸'상도 모든 것이 원쑤놈들에 의하여 다 이렇게 불타 버렸습니다. 오직 불에 끄슬리면서도 아름드리 푸라다스나무만이 원쑤놈들의 이 만행을 날날이 기억하며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림극은 끝났다. 아이들은 일어서서 학교 둘레를 살펴 보았다. 정전 후에 훌륭히 세워진 학교 둘레에다 듬성듬성 나무를 심기 시작했지만 아직 멀였다.

《우리 학교를 록음이 우거지고 새들이 우짖게 하자.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주신 우리 학교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몇 배나 더 아름답게 꾸리자! 원쑤놈들이 보면 놀라 자빠지게.》 그림극을 구경한 소년단원들은 저마다 주먹을 불끈 불끈 쥐였다. 그리고는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대로 학교를 아름답게 꾸리는 일에 더욱 힘차게 나섰다.

다시 그 나무 밑에서

그 때로부터 4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다시 푸라다나스나무 밑에 모였다.

아이들은 감격어린 눈'길로 자기 학교의 곳곳을 살펴 본다. 모든 것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4년 전 한 그루 두 그루 심고 가꾼 나무는 자라고 자라 가지를 뻗쳤다. 푸른 숲 속 학교에 뭇새들도 찾아 와 이 나무 저 나무에 옮겨 앉으며 우짖는다.

여러 가지 과일나무들에는 벌써 과일이 열려 오늘은 첫 수확 모임을 가진다.

《소년단원 동무들! 지금부터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열린 복숭아와 앵두를 가지고 〈수확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단 위원장 박 준천 동무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요란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천이는 잠시 아이들을 둘러 보고나서 학교 둘레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첫 수확을 내기까지의 가지 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였다…

《푸라다나스나무가 전한 이야기》를 들은 후 이 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은 날마다 꿀벌들처럼 부지런히 일하였다.

나무도 심고 꽃밭도 만들었다. 멀리 야영소에 가거나 일요일이나 방학 때에 친척 집에 갔다가도 좋다는 나무와 꽃이 있기만하면 한 가지씩 가져다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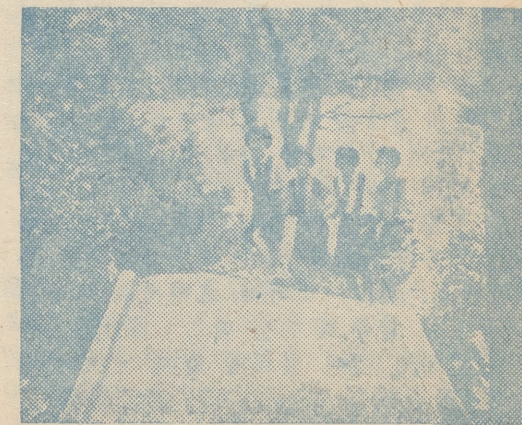
친척 집에 편지를 내여 자기 학교에 없는 꽃씨를 얻어다 심는 동무들도 있었다.

몇 해 전 여름 어느 날 밤이였다. 비가 마구 퍼붓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 때 인민반 3 학년이였던 준천이는 잠'결에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그는 학교에 갓 떠다 심은 과일나무들이 걱정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 다름으로 자기 반의 교호 동무를 깨워 가지고 학교에 달려 나왔다. 그 날 밤 그들은 날이 훤히 밝을 녘까지 비'바람과 싸우며 나무에 뎡'대도 매 주고 북도 주었다. 그들은 밤새 비'바람과 싸우고 돌아 갔지만 아무래도 복숭아나무가 걱정되였다. 아침 일찌기 나와 보니 아니나 다를가 복숭아나무 몇 그루가 부러져 있였다. 그들은 그 길로 단숨에 협동 농장 과수 반장 아저씨에게 달려 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복숭아 묘목을 얻어다 그 자리에 심어 놓았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소년단원들 속에서는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 훌륭한 일을 하는 동무들이 날로 늘어 갔다. 그리하여 4 분단(중등반)의 영일이는 15 년 동안이나 자기 집 울안에서 길러 온 철쭉꽃나무를 학교에 가져 왔다.

단 위원회에서는 모임을 열고 영일이의 아름다운 행동을 칭찬하고 이 철쭉꽃나무를 동무들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현관 앞에 심었다.

이렇게 심은 나무들은 모르는 새에 쭉

록음 우거진 숲 속을 거니는 기쁨

쭉 가지를 뻐치며 자라 올해엔 과일나무들에 열매가 열렸다. 종달새, 접동새, 박새, 대까치, 방울새 같은 고운 새들도 찾아 와 노래 불렀다. 정말 학교는 공원처럼 아름다와졌다.

이 학교의 그 많은 나무들을 하나하나 살펴 보아도 부러진 가지가 하나도 없다. 어떤 아이들이기에 이렇게 나무'가지 하나 다치지 않고 소중히 여길가!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아침 학교 둘레를 청소하던 7 분단 위원장 박 영환이와 그의 동무들은 한 그루의 복숭아나무 밑에서 못 박힌듯 서 버리고 말았다. 매일 아침마다 와 보면 제일 큰 복숭아 열매의 꼭지에 실이 매여 있지 않는가, 영환이는 가만가만 실을 풀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만 복숭아가 떨어지고 말았다.

《누가 이런 장난을 했을가?!》 아이들은 모두 아쉬운 얼굴이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후에 알고 보니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였다.

그 날 인민반 2 학년 리 현오 동무는 누구보다 학교에 일찍 나왔다. 현오는 늘 하던 버릇처럼 그 날 아침도 복숭아가 얼마나 컸을가고 달려 와 보았다.

(이게 웬 일일가?) 그 제일 큰 복숭아가 바람에 꼭지가 상해 거의거의 떨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중등반 형님 누나들이 얼마나 아끼던 것인가. 물끄러미 복숭아를 들여다 보던 현오는 무슨 좋은 생각이 난듯 그 달음으로 복도 청소를 하고 있는 리 영옥 누나를 찾아 갔다. 그는 그에게서 실한 오리를 얻어다 행여나 다시 볼을 가해서 이렇게 복숭아 꼭지를 동여매 놓았던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니 어찌 나무'가지를 꺾거나 풀 한 포기인들 짓밟겠는가! 바로 이런 소년단원들이기에 복숭아, 앵두, 대추, 감, 추리 등 과일들을 날마다 헤아려 보면서도 그들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다. 바람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말 없이 주어서 선생님들의 책상 우에 가져다 놓군 하였다.

《…4년 전에 떠다 심은 나무와 함께 오늘의 첫 수확 모임을 가지기까지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학업 성적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4 분단, 7 분단, 9 분단은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7 분단은 2중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하여 나섰습니다.》

단 위원장 동무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끝맺았다.

푸라다나스나무 밑에 앉아 첫 수확물을 앞에 놓고 지나 온 나날을 더듬어 보는 아이들의 얼굴마다에는 말할 수 없는 자랑과 기쁨이 어려 있었다.

오늘은 내가 앉아 있지만…

학교 주변을 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리면서 이 학교 동무들은

《책상은 피아노처럼, 교실 바닥과 현관, 복도는 거울 알처럼》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학교의 모든 것을 제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어느 교실에 들어 가 보나 책상과 걸'상에서 잉크 방울 하나 찾아 볼 수 없고 현관과 복도 어디를 보나 빛이 난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수 많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단 속보판 앞에 둘러선 소년단원 동무들은 모두 머리를 기웃거렸다. 단 속보에는 《누가 낸 흔적일가?》라는 제목의 원고가 나붙었다.

학교 현관 벽에 누가 연필로 선을 그었던 것이다.

《누가 한 짓일가?》

《글쎄말야!》 소년단원들은 속보를 읽으며 모두 격분하였다. 분단들에서는 모임이 열리고 토론이 벌어졌고 속보에는 소년단원들의 지상 토론 원고가 나붙었다.

동무들은 아마 이 연필 흔적을 낸 동무는 요새 갓 전학해 온 동무일 거라느니,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와 소년단원의 의무를 잘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일 것이라느니 하며 모두 자기 의견을 써 붙였다. 비록 작은 흔적이지만 이들이 이처럼 격분하는 데는 그럴만한 일이 있는 것이다.

작년 4. 15 명절 때였다. 7 분단 동무들은 만경대를 견학하였다. 이들이 돌아온 후 분단들에서는 모든 소년단원들 속에서 원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책상과 걸'상에 칼'자리 하나, 연필'자리 하나 내지 말자고 하였다. 그리고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본받아 학교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자고 떨쳐 나섰다. 그리고 단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물건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소년단원 리 임순 동무의 모범을 널리 소개하기도 하였다. 임순이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학교에 일찍 나와 현관과 복도 청소를 깨끗이 해왔다. 그는 일요일과 방학을 가리지 않고 나와 말 없이 제할 일을 하고 들어 갔다.

혹 방학 때에 멀리 친척 집에 놀려 갔다가 돌아 올 때도 그는 먼저 학교에부터 들려 보았다. 현관과 복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책상과 걸'상을 정말 자기 몸처럼 깨끗이 거두는 것이였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거울알 같았다.

한편 분단 위원회에서는 임순 동무처럼 학교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여 꼭 약수 중학교 동무들을 따라 잡자고 동무들에게 호소하였다. 소년단원들은 한 사람 같이 움직였다. 현관으로부터 시작하여 복도, 교실 바닥, 책상, 걸'상을 차례차례로 빛을 내여 나갔다. 먹칠을 하고 들께

거울 같이 비치는 우리 책상

기름을 칠하니 며칠 안가 번들번들 빛이 났다. 좋다는 들깨잎, 노란꽃, 금전화꽃도 칠하고 산에 가서 기자 열매도 따다 칠하였다. 그들은 또 짬만 있으면 초칠을 하고 벼'겨로도 닦았다.

어느 교실에 가 보나 모두 한결 같이 알른알른 빛이 났다.

바로 이러한 때에 누구인가 현관 벽에 연필로 선을 그어 놓았으니 어찌 소년단원들이 격분하지 않겠는가!

며칠 후 단 속보판에는 《연필 흔적은 내가 냈어요.》라는 제목을 단 원고가 나붙었다. 이 원고를 쓴 동무는 9 분단 서 용복 동무였다. 그는 날마다 단 속보에 나붙는 동무들의 원고를 남몰래 읽으면서 나라와 인민의 재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뉘우쳤던 것이다. 단 위원회가 조직한 이 지상 토론은 용복이 뿐만 아니라 많은 소년단원들로 하여금 학교의 물건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오늘 이 곳 학교 소년단원들은 《…오늘은 내가 이 집을 쓰고 있으나 래일은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쓰고 살 수 있으며 오늘은 내가 이 걸'상에 앉아 있지만 래일은 다른 사람이 이 걸'상을 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집과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걸'상, 책상들을 사랑해야 하며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와 일하고 있는 공장들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전국 교육 일'군 열성자 대회에서 하신 원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오직 원수님의 가르침 대로 학교를 꾸리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어린 살림'군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 ×

그러기에 지금 이 학교에는 각지의 많은 학교 소년단원들이 견학하려 찾아오고 있다. 이들은 지금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범 소년단 단체》 칭호 쟁취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가는 이들의 앞길에는 반드시 빛나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응식이는 왜 죽였을가요

로력 영웅 추 상 수

음침한《함바》(함바란 로동자들에게 밥을 팔아 먹고 재우는 곳)의 밤은 덧없이 깊어 어느덧 닭이 두번째 홰를 쳤습니다. 쿵쿵 마루 울리는 소리가 나자 《함바》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함바》의 주인이며 십장놈이 왜놈 감독 《하바다》라는 놈과 함께 들어 왔습니다.

왜놈은 꽁무니에 찼던 나무망치로 긴 통나무 베개(《함바》의 주인놈은 베개'감에 돈을 안 들이자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베고 잘 수 있게 긴 나무로 《베개》를 만들었다)를 쾅쾅 두드렸습니다.

소금 바른 강조밥 한 덩이씩으로 아침 요기를 한 우리는 마귀의 울음 소리 같은 배'고동이 울려 오는 선창으로 끌려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놈의 배에다 짐을 싣고 부리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놈들은 선창에 기중기를 설치하면 기계 값에 돈이 든다면서 로동자들의 등으로 짐을 싣고 부리우게 하였습니다. 일제 놈들은 이 선창으로부터 해마다 수십만톤의 철을 빼앗아 가고는 자기 나라에서 팔리지 않는 자전거, 고무신, 귤같은 것을 가져다가는 조선 사람들에게 바싸게 팔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 때 이 선창에서는 응식이라는 14~15세 가량 되는 소년이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였습니다.

응식이는 본래 나와 한 고향이였는데 《미쯔비시》라는 왜놈 회사의 선돈을 쓴 아버지가 그만 급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되자 그 빚값으로 이 곳 겸이포(지금의 송림)로 끌려 왔던 것입니다.

하루는 내가 허기진 배를 그러쥐고 점심 때가 되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짐을 메여 나를 때였습니다.

《이 놈아 거기서 뭘해?》

귀청 떨어질듯한 소리가 나더니만 어느새 징을 박은 감독놈의 구두'발이 날아 가 땅에 엎드린 응식이의 손'등을 짓밟고 사정 없이 걷어찼습니다. 응식이는 허리도 펴지 못 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허기'증을 참아 가며 짐을 나르던 응식이는 땅에 떨어진 귤 한 개를 줏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로동자들이 쓰러진 그를 구원하려고 뛰여 왔으나 왜놈 감독놈은 꽥꽥 소래기를 지르며 다가 서지도 못 하게 하였습니다. 소년의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는 그의 앞 가슴에 써 붙인 803 번이란 번호를 벌겋게 물들이였습니다. 《803 번》이란 응식이의 《이름》이였습니다. 왜놈들은 수천명이나 되는 로동자들을 손 쉽게 알아 보고 더 많이 부려 먹기 위해 손'바닥만한 헝겊 조각에 쓴 번호를 가슴에 붙이게 하고 이름 대신 그 번호를 불렀던 것입니다.

화물선의 감시대에는 망원경과 채찍을 든 왜놈 감독들이 승냥이 같은 눈알을 굴리며 서 있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일'손이 느린 사람들만 눈에 띄이면 달려 와서는 죽으라고 채찍질을 하고는 번호를 적였다가 로동자들 앞에서 《벌》을 주군 하였습니다.

점심 시간 때였습니다. 감시대에서 부는 호각 소리가 났습니다. 당장 갑판 우에 모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또 누가 죽을 〈벌〉을 받는 모양이로군…》 이렇게 생각하며 갑판에 올라 선 순간 나는 그만 그 자리에 못 박힌듯 굳어져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높다란 기중기에 까꾸로 매달린 세 사람 속에 응식이가 끼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놈들은 기중기에 꺼꾸로 매단 사람들의 상반신을 강물에 처넣었다가는 꺼내고 하면서 껄껄 웃어 대는 것이였습니다. 놈들은 응식이를 아까 이미 반죽음을 만들어 놓고도 부족하여 겨우 정신을 차린 그를 다시 이렇게 끌어다 《벌》을 주는 것이였습니다.

왜놈들에게서 《벌》을 받고 난 뒤부터 응식이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아저씨, 난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돌아 가신 아버지 제사'날도 돼 오는데…》

간죠(돈 타는 날)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응식이가 조용히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아버지 제사도 보고 쇠약해진 몸도 회복시킬 겸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 돌려야 하겠다고 생각한 나는 단돈 몇푼이라도 얻어 보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두 밥값도 제대로 물지 못하는 형편에 돈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돈을 끝내 얻지 못 했는데 어쩌면 좋겠니, 추석엔 꼭 가겠다고 어머님께 편지나 쓰자꾸나.》

그러나 어쩐지 머리를 숙인채 말이 없던 응식이의 여윈 볼로는 두 줄기의 눈물이 쭈르르 흘렀습니다.

《아저씨, 난 글 쓸 줄을…》 그가 우는 것을 보니 나의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주놈의 소작살이를 하는 아버지의 일'손을 돕느라고 응식이는 학교라곤 문 밖에도 못 가 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까지 낭 놓고 ㄱ 자 하나 모르니 더욱 딱한 일이였습니다. 그러니 모른다고 그 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많은 《함바》의 로동자들 가운데는 편지 하나 변변히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침한 《함바》의 밤은 덧없이 깊어만 갔으나 자정이 넘도록 응식이는 어덜 갔는지 돌아 오지 않고 있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를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든 나는 아저씨란 말에 눈을 떴습니다.

《이걸 봐요, 김 십장네 집에 갔다 오는 길이예요, 돈 70 전을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편지를 써 왔어요.》

편지를 내미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등 치고 간 빼 먹는 이 놈의 세상이 언제 뒤집히겠니, 어린것에게 편지 한장 써 주고 돈 70 전! 에익 망할놈의 세상.》 나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튕겨 나왔습니다. 그 때는 공부깨나 한 십장이나 감독놈들 까지도 이처럼 글'자 몇자를 써 주고도 돈을 받아 먹는 방법으로 로동자들을 착취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 편지는 응식이의 아래'주머니에서 보풀이 일고 있였습니다. 우표 살 돈 3 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 아침 응식이가 고향에 가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은 《함바》 주인놈은 《이 놈, 밥 값도 물잖고 어디로 달아 날려고 해.》 하고 그 놈은 밥 값을 당장 물지 않는 날에는 경찰서에 일러 바치겠다고 을러대며 밥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승냥이처럼 달려 든 《함바》 주인놈은 응식이의 몸을 뒤지더니 다짜고짜 몇장 안 되는 전표(매일 일하고 그 날 얼마를 벌었다는 것을 표식한 종이 쪽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씩 돈과 바꾼다.)를 빼앗아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응식이는 눈물을 머금고 허약해진 몸을 움직이며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이였습니다.

그 날도 앓는 몸에 점심까지 굶고 무거운 쇠'덩이를 등에 지고 그네처럼 휘청거리는 발판을 톱아 오르자니 응식이는 후둘후둘 아래'다리가 떨려 제 대로 걷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이걸 보고 있던 《모리야마》라는 감독놈이 《바가야로, 파리 파리나가지 못해!》하고 채찍으로 응식이의 아래'다리를 휘감았습니다.

순간 발판 우에서 몸을 가늠하려고 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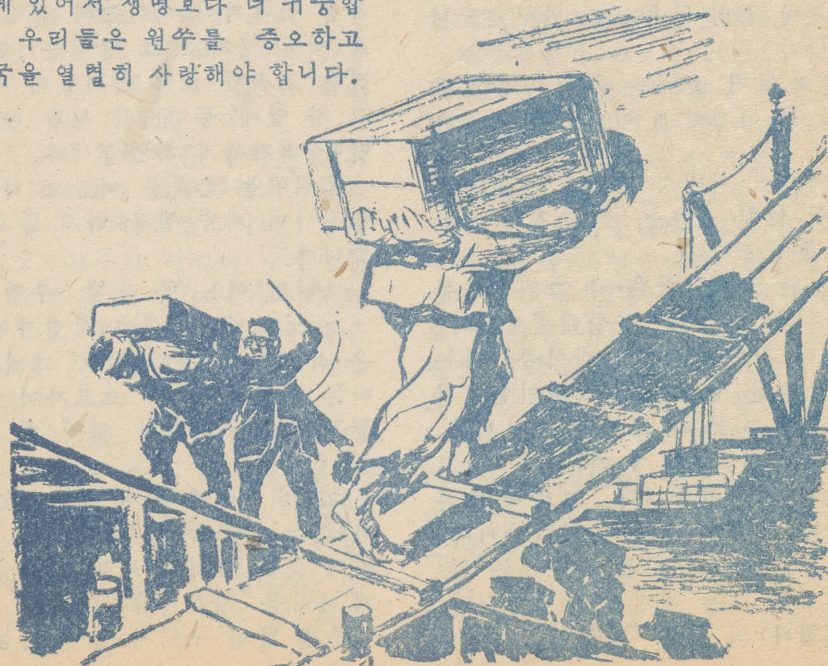
번 기우'뚱 거리면 응식이는 그만 누가 미처 달려 가 잡을 새도 없이 소용돌이치는 물'속에 첨벙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동자들이 바'줄과 장'대를 물에 던졌으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물'속에 잠겨 들어 간 응식이는 벌써 간 데가 없고 원한에 찬 강물만이 스산하게 소리치며 흘렀습니다.

아득바득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고향에 가 어머니를 모시겠노라고 어린 몸에 창자를 그러 쥐고 일을 하던 응식이! 나는 그 날 밤, 어굴하게 죽어 간 응식이에 대한 생각과 함께 그를 무참하게 죽인 왜놈에 대한 증오로하여 온 밤 잠을 이루지 못 하였습니다.

물론 그 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간 소년이 어찌 응식이 하나 뿐이겠습니까.

그 때는 나라를 빼앗긴 조선의 수 많은 응식이들이 거리와 마을 공장과 광산에서 이처럼 억울하게 죽어 갔던 것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나라가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우리 인민이 왜놈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사회주의 조국—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원쑤를 증오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해야 합니다.

☆ (이것을 아십니까) ☆

용해공은 왜 검은 안경을 쓸가요?

동무들이 공장에 견학 가서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용해공들과 전기 용접을 하는 로동자 아저씨들이 검은 안경을 쓰고 일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검은 안경을 쓸가요?

용광로에서 쇠'돌을 녹이거나 전기로 쇠를 용접할 때는 수천 도나 되는 열이 나면서 눈부신 빛을 내게 됩니다,

이 빛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자외선이라는 광선이 있는데 특히 자외선은 사람 눈의 망막을 못 쓰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망막을 타게 한다.) 그런데 검은 유리는 이 자외선을 통과시키지 않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유리도 자외선을 잘 통과시키지 않는다.)때문에 높은 열과 눈부신 빛을 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검은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옷을 벗고 다니면 해'별에 피부가 타는 것도 자외선 때문인 것입니다.

사라진 그림자

(제 7 회)

박 응 호

그림 양 재 혁

7. 이것을 잊지 말라

천룡이는 나흘 만에 퇴원하였다. 비록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이였으나 이 기간은 천룡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한 나날이였다.

그는 그간 다정한 동무들에 대하여,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우리 제도에 대하여, 협동 농장에 대하여 그리고 가정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의 가슴에서는 새로운 힘이 용솟음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의 귀중한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도 싹터나기 시작하였다.

입원한 지 나흘이 되는 날 아침에 천룡이는 혼자서 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학교로 왔다. 명길이를 비롯한 다정한 동무들을 한시 바삐 만나고 싶은 생각도 이려니와 그보다는 명길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였던 것이다.

천룡이가 학교에 나타났을 때 분단에서는 방금 모임이 시작되려는 때였다.

천룡이를 맞은 분단은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들끓었다. 명길이 어머니까지도 그를 품에 안아 주며 기뻐하셨다.

어머니는 잠시 교단에 선채 명랑한 아이들의 얼굴들을 사랑에 찬 시선으로 바라 보았다.

교실은 물을 끼얹은듯 조용했다.

《여러 분! 여러 분들은 행복할 때마다 오늘의 행복이 있기 전에 여러 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걸어 온 피눈물에 젖은 지난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세상에 태여나서 이름 석 자도 가지지 못 했다. 그가 이름을 가진 것은 장리 콩 한섬 값에 팔리여 지주네 집으로 끌려 갔을 때였다. 지주는 그를 부려 먹기 위해 그 전에 머슴 살다 병들어 죽은 길녀란 처녀애의 이름을 그 대로 불렀다.

열 살의 어린 나이인 길녀는 새벽에 일어나 밤이 깊어서야 소 외양'간과 맞대여 지은 머슴'군들의 방에서 이불도 없이 꼬부리고 새우잠을 자군 하였다.

지주 오 동학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왜놈들의 앞잡이로 구장까지 겸하고 있었다. 그 집에는 밤낮 없

이 왜놈 순사들과 관리들이 드나들었고 놈들은 술놀이로 세월을 보냈다.

왜놈을 등에 업고 오 동학은 가난한 농민들을 못 살게 굴었다.

길녀는 오 동학의 몸'종이 되여 아침 저녁으로 그 놈의 발을 씻어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놈의 신발을 품에 넣고 다니다 신겨야 하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오동지 섣달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아침이였다.

오 동학이 어디 나갈 차비로 길녀를 불렀다. 그 때 길녀는 독감에 들어 몸시 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방안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몸을 녹이노라 부엌 아궁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심한 신열로 길녀는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고통을 참고 있었다. 길녀는 미처 오 동학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 하였다.

성이 난 오 동학은 대청 마루에 버티고 서서 비칠거리며 나타난 길녀를 노려 보고 있었다. 그 놈은 길녀가 신발을 꺼내 놓기가 바쁘게 세차게 어린 길녀를 차 굴렸다. 길녀는 허궁 높은 대청에서 굴러 떨어졌다. 길녀는 그만 까무라치고 말았다.

이 때 나무하러 갔다 오던 마당쇠란 소년 머슴이 아니였드면 그는 필시 죽었을 것이였다. 열 다섯살인 마당쇠는 찬바람 속에 쓰러져 있는 길녀를 안아다 눕히고 그를 간호하였다.

이런 구박과 천대는 그 후 더욱 심해졌고 막심한 고생은 한참 자라야 할 나이인 길녀의 어린 몸을 좀먹었다. 그러나 길녀는 빚을 갚아야 할 동안은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다.

더우기 어린 몸에 고통스러운 일은 오 동학의 녀편네가 아이를 낳지 못해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때였다. 길녀는 이 때면 이십 리나 되는 이 절'간으로 하루 세끼 더운 밥을 날라야 했다. 가파로운 산정에 있는 절'간을 오르내리자면 그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아무리 부처에게 손발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어도 끝내 지주 녀편네는 아이를 낳지 못 하였다.

허구한 나날은 흘러 어느덧 길녀는 열여덟 살이 되였다. 이 해면 그는 빚을 다 갚게 되여 있었다. 오 동학은 길녀를 내놓기가 아쉬웠다. 착하고 부지런한 길녀의 솜씨는 이 집 어느 구석치고 닿지 않은 곳이란 없었다. 그만큼 길녀의 솜씨는 알뜰하였던 것이다.

오 동학은 한 꾀를 생각하였다.

어느 날 왜놈 순사부장이며 면장들과 함께 술놀이를 하던 오 동학은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길녀와 마당쇠의 결혼식을 차렸다. 식이라는 것은 말 뿐이고 새 옷도 없이 입고 있는 그 대로 결혼식을 하였다. 어쨌던 길녀와 마당쇠는 부부가 되였다.

오 동학은 결혼식을 차려 준 값으로 그들을 다시 머슴으로 얽매여 놓았다.

이듬 해 길녀는 아들을 낳았다. 아기는 어떻게 실하고 복스러웠던지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찼다. 더우기 아기가 첫 울음을 울었을 때 그것이 어찌도 우렁찼던지 먼 사랑'방에까지 들렸다.

사람들은 장수 아이라고까지 했다. 이런 기운 차고 찍찍한 아기는 보기 첨이라고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머슴들은 마치 자기 아기처럼 짬 나는 대로 안아 주고 업어 주고 하였다. 머슴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름을 지었는데 억철이라고 했다. 억센 무쇠같이 되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다.

부부는 고생 속에서도 억철이를 유일의 기쁨으로 알고 살았다.

억철이는 누구도 돌봐 주는 사람도 없는 외양'간 오막살이 집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억철이가 돐이 지난 해 봄이였다.

여지껏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던 억철이가 콩콩 기침을 깇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몸도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래도 얼마 동안은 앓으면서도 여전히 방안을 돌아 다녔다. 그랬던 것이 일 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서부터는 차츰 기력이 약해지며 자리에 눕기 시작하였다. 그처럼 실하던 억철이는 며칠 사이에 홀짝 살이 빠지고 더는 일어 나지를 못 하였다.

그 때 머슴을 사는 형편에서 병원에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였다. 어머니는 몇 날 몇 밤을 뜬 눈으로 날을 밝히며 억철이를 붙안고 가슴을 바글바글 태웠다.

아버지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쑥을 구해다 어린 억철의 가슴에 뜸을 놓았다. 어린 가슴에는 끔찍한 뜸'자리로 얼룩이졌다.

어머니의 눈물도 아버지의 한숨도 억철이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다. 억철이는 더는 움직이지도 못 했다. 숨'소리도 차츰 낮아졌다. 어머니는 가슴을 쥐여 뜯으며 안타까와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이였다.

지주 오 동학이 문'간에 나타났다.

《가망이 없나?》

오 동학이 방안을 비스듬이 들여다 보며 물었다. 어머니는 넋을 잃고 흑-흑 느껴 울었다. 아버지가 그래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오늘 낼 한다고 땅이 꺼지게 숨을 쉬였다.

피둥피둥한 얼굴에 실눈을 가늘게 뜨며 오 동학이 말했다.

《원 사람두…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나!》

《말씀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사와요.》

《그건 무슨 소린감?》

《이 놈을 살리자면 돈이 있어야 할게 아니와요. 이제 또 빚을 내면 어느 세월에 갚겠나요.》

《여보게…임잔 날 어떻게 보구 하는 말인가. 내 그래두 임자네 중매를 한 사람 아닌가…》

《거야 그렇습지요.》

아버지는 뜻밖의 말에 그만 당황하기까지 했다. 언제 한 번 오 동학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었던가. 아버지는 못 미더운 눈으로 오 동학의 얼굴을 어정버정 살폈다.

《돈 몇 푼 들겠다구 내 거절을 하겠나? 임자네를 두고 보면 한 집안 처지가 아닌가. 듣자니 딱해서 나왔네.》

이 말에 아버지, 어머니는 그만 가슴이 억해져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비록 거짓말이라고 해도 이런 때에는 흔히 곧이 듣기 마련이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짚오라기에도 매 달린다는 말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는 오 동학이에게 기대를 걸지 않으면 안 되였다.

《병원에 보내서 치료 받게 하자구. 마침 나두 군청에 들어 갈 일이 있구 해서 같이 가겠네! 내 잘 아는 의사께 보이면 틀림없겠지…》

오 동학은 자신 있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땅에 닿게 절을 하며 고마와 하였다.

이 날 오 동학이는 병원까지 같이 따라갔다. 의사는 억철이를 진찰하고 나서

《전염병이요. 지프테리에 걸렸소.》

하고 사형 선고라도 내리듯 안경 알을 번쩍이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선생님…제발 살려 주세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시간이 너무 지났소. 그러나 오 선생 부탁이기도 해서 손은 써 보겠소.》

의사는 넌짓이 오 동학을 바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기어이 억철이 곁에 있겠다고 하였으나 의사는 전염병 환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거절하였다.

사흘을 어머니는 병원 문 앞에서 살다 싶이 하였다. 밤에 거죽을 깔고 찬서리를 맞으며 억철이의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 어디선가 어린애의 울음 소리만 나면 어머니는 쪽잠에서 깨여나 병원 유리창에 귀를 기울이고 억철이의 울음 소리가 아닌가 하고 엿듣기도 하였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 갔을 때 의사는 억철이가 어제밤에 죽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 소리에 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에 까무라치고 말았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아들을 보여 달라고 의사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화장(불에 태우는 것)하기로 되여 있다고 하여 벌써 내갔다는 것이였다.

어머니는 대성 통곡을 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어머니가 미친 사람 모양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 동학 마누라는

《사람의 팔자가 그런 걸 어떻거겠나… 임자들이야 젊은 몸이니 또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지 않나…》

하고 위로하듯 말했다.

어머니는 그 날 억철의 헌 이불이며 그가 입던 단벌 옷들을 불 놓으며 밤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슬픔 속에 몇 달이 지났다.

오 동학이의 태도가 날을 따라 표독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하찮은 흠'집을 잡아 가지고는 억철이 아버지, 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그 놈은 아버지,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다. 빈 손으로 한지에 나앉은 아버지, 어머니는 흘러흘러 떠돌아 다니며 거지와 다름 없는 생활을 하였다. 한 해를 떠돌아 다니다 그들은 그래도 고향이 낫다고 되돌아 왔다. 그들은 산'기슭에 움막을 짓고 부대를 일구어 근근히 살아 갔다.

억철이가 죽은 지 이태만에 명길이가 태여났다.

명길이가 세 살 잡히는 해 오 동학은 명길이 아버지를 왜놈 순사들과 짜서 보국대로 일본에 보내였다. 그 놈은 무슨 심사론지 계속 명길이네를 못 살게 굴었다. 마지막에는 어머니마저 허가 없이 부대를 일구었다는 구실을 붙여 붙잡아 가게 하였다.

한 달 남짓이 경찰서에서 고생을 한 어머니는 명길이를 데리고 다시금 정처 없는 류랑의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흘러흘러 다니다 지금 이 곳에 머물러 살게 되였던 것이다.

해방이 되였다. 아버지도 돌아 오고 나라에서 많은 땅도 받았다. 새 생활이 시작되였다. 아버지는 마을 세포 위원장이 되였고 어머니는 녀맹 사업을 맡아 보았다.

새 세상의 주인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라 일에 힘을 썼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행복한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 꽃피여 나기 시작하였다.

행복한 생활은 다시금 미국놈들에 의하여 짓밟혔다.

후퇴시기 아버지는 고향을 지나다 불행히도 치안대놈들 손에 붙잡혔다. 오 동학이는 김 성춘이란 이름으로 치안대 대장을 하고 있었다. 그 놈은 토지 개혁 때 자취를 감추었다. 미국놈들이 들어 오자 다시 고향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붙잡아다 학살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것을 알 리 없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아이들은 모두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천룡이도 눈물이 글썽하여 어머니를 지켜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런 말로 이야기의 끝을 맺았다.

《여러 분…아버지, 어머니들의 피 눈물을 짜 낸 이 원쑤놈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쑤놈들은 아직도 뒤에 숨어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조국이 안겨준 행복

차에서 내린 우리 야영생 일행은 중앙 소년단 야영소가 자리 잡고 있는 석암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경룡호에 이르자 나루터에는 벌써 야영소의 유람선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뿌리가 모자라게 아득히 넓은 경룡호의 물'결을 헤가르며 내닫던 유람선은 이윽고 봉화산'기슭에 와 닿았습니다.

(야 굉장하구나!)

배에서 내린 나는 호수'가에 궁전처럼 화려하게 솟아 오른 야영소를 바라 보면서 너무도 황홀하여 나는 혼자 이렇게 마음 속으로 몇 번이고 외왔습니다.

나는 려장을 풀기가 바쁘게 먼저 온 동무들에게 어서 야영소부터 좀 안내해 달라고 했습니다.

폭신폭신한 꽃'이불들이 깔린 침대들이 주른이 놓인 침실들, 구락부, 도서실, 음악실, 오락실, 소년단실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소년단실에는 벌써 뽀트놀이, 등산, 우등'불모임, 연예 및 체육 축전 등 야영 기간에 할 다채로운 모임 계획들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여름을 마음껏 즐길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자꾸만 설레였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여 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맛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식탁 그득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술을 들자 문득 낯서른 일본 땅에서 설음 많은 나날을 보내던 지난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집 살림은 넉넉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설음으로 나의 마음은 늘 우울해 있었습니다.

즐거운 명절날이나 원족 가는 날, 또는 운동회 날이면 눈물을 짜군 하던 일이 엊그제 일 같았습니다.

일본 교도 제 7 소학교 2학년 때의 여름 방학이였습니다. 학급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3일 간 수학 려행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려비를 마련하지 못해 끝내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종일 집 울밑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눈'두덩이 띵띵 부었습니다.

저녁녘에 마침 삼촌이 사탕을 사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들려 주면서 《그만 울어라. 인제 조국으로 가면 돈 없는 집 애들두 마음껏 배우구, 수학 려행보다도 더 좋은 야영소에두 갈 수 있단다.》고 달래던 일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원족을 갈 때면 나의 눈'두덩은 언제나 부어 있었습니다. 어쩌다 원족을 갔다해도 나는 점심 시간만 되면 슬며시 동무들 속에서 빠져 나와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나 동무들이 오면 얼른 밥곽 뚜껑을 덮어서 감추군 했습니다. 있는 집애들은 별의별 맛나는 음식을 차려 가지고 와서 먹는데 나는 아무 것도 해 가지고 간 것이 없어서 남 보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행복에 쌓이게 되니 어찌 기쁨의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일본에서 고생하던 이야기를 다 적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가끔 수업료를 제때에 물지 못 해서 선생님한테서 욕을 먹고 때로는 학교에서 쫓겨 나기도 했습

니다.

우리 집에서는 다섯 남매가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벌어 가지고는 우리들의 수업료를 당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제 힘 자라는 대로 일을 해서 수업료를 보탰습니다. 영자 언니는 있는 집의 가정 교사로 가서 그 집 애들의 글을 배워 주고 돈을 얼마 간 받아다 수업료를 내면서 공부했습니다. 규자 언니는 밤이면 식당에 가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밤이 깊도록 접대원으로 일하고 돈을 얼마간 받아다 수업료를 보태군 했습니다.

언니는 방학이 되여도 한 번 편안히 놀아 보지 못 했습니다. 벌써 방학이 되면 어디서 품을 사겠다는 광고가 거리에 나붙지 않았나 해서 두리번거리며 광고를 찾아 다녔습니다.

열 두살 인 상렬 오빠도 수업료와 학용품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조선 사람이라고 가는 곳마다에서 민족적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조국의 품에 안긴 우리 형제들은 모두 제가 희망하는 학교에서 마음 껏 배우고 있습니다. 규자 언니는 지금 무용 학교를 졸업하고 국립 예술 극장 배우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희 언니와 상렬 오빠도 지금 평양 음악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도 평양 예술 대학 예과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조국의 고마움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나는 얼굴에 보기 흉하게 부스럼이 돋는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나를 피부성 병원에 입원시켜 3 개월 간이나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덕 석탄 온천 료양소에까지 보내 주어 50 일간이나 무료로 료양 생활을 시켜 주었습니다. 일본에 있으면야 어디 꿈엔들 생각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신병으로 늘 앓아서 자리에 누웠지만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병을 고쳐 볼가하여 편안치 않는 몸을 가지고도 삯바느질을 하여 겨우 얼마 간의 돈을 벌어 병원에 입원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비싼 입원 수속비요, 약 값이요, 침대비, 밥값 등을 물다 나니 곧 돈이 떨어져서 얼마 치료를 받지도 못 하고 쫓겨 나오군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와서 또 삯 바느질을 해서 돈을 좀 마련해 가지고 다시 들어 가 며칠씩 있다 나오군 했습니다. 그러니 병이 낫을 리 있겠습니까!

조국에 돌아 와서야 비로소 어머니는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개월 동안 평양 적십자 병원에 입원해서 무료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어머니의 병이 회복되여 가자 주을 료양소에까지 보내여 주어 두달 반이나 료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송단 휴양소와 묘향산 휴양소에서 휴양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당과 조국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말하겠습니까!

어머니는 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당과 수상님의 은덕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군 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원수님의 배려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나는 최우등을 했습니다. 지난 봄 새 학년에 올라 오면서 동무들은 나를 분단 위원으로 선거 했습니다.

아직 일본에 계시는 영자 언니가 조국에 돌아와서 이것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동무들이 모두 돌아와 이 행복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직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국에 돌아 오자 못 한다 하더래도 방학 때마다 조국에 와서 우리와 같이 조국의 아름다운 명승지들을 견학하고 답사도 하며 야영 생활을 하면서 여름 방학을 즐겁게 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기 마음 대로 조국에 왔다 갈 수 있는 길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독 조선 사람만이 사랑하는 부모 동생들이 있는 자기 조국에 자유로이 래왕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때문에 지금 일본에 있는 동포들과 전체 조선 인민들은 재일 동포들이 자유로이 조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일 동포들의 조국에로의 래왕은 반드시 이루어 지고야 말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새 학기에도 모든 힘을 기울여 학습하여 반드시 최우등을 해서 오늘의 이 행복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평양 예술 대학 예과 2 학년 (제 4 분단)
윤 정 희

★ 왜 그럴가요 ★

무연탄에는 왜 진흙을 섞을가요?

모든 물질이 타는 데는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연탄도 공기가 잘 통해야만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탄만을 물에 개여서 덮는다면 무연탄 가루가 마르면서 그 대로 굳어져서 공기가 잘 통하지 못 합니다. 그러나 진흙을 알맞게 섞으면 진흙 속의 작은 구멍들로 공기가 통해 무연탄이 잘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단편 소설)

고무신

현룡군

늦가을은 실없이 차거워 아침이면 서리를 하얗게 깔아 놓군 하였다.

아침 해'살도 미처 퍼지기 전이였으나 진호는 나무를 해 오라는 황 지주의 독촉을 벌써 세 번이나 받았다. 그는 푹 처진 어깨에 지게를 걸머지고 맥없이 사립문을 나선다. 열 발'가락은 마치 눈 우에서처럼 또박또박 자리를 내며 걸어 나간다.

산후병으로 퉁퉁 부어 오른 몸을 뒤척이면서 아들의 발'자국을 내다 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진호는 발이 시리다 못 해 저려 왔다. 그는 발끝으로 콩콩 뛰다는 그 자리에 난짝 주저 앉아서 토스레 웃깃을 번갈아 발에 감는다. 그리고는 손으로 주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진호는 나무할 때나 신으려고 지게 다리에 맨 헌 짚신을 아예 신을 생각도 안 한다.

《여보, 저앨 보시라요… 약은 그만 두시고 진호 고무신이나 사 와요.》

《발이 시리다고 죽기야 하겠소. 고무신 한 켤레를 사 주겠다고 품 네 자루를 해 주마하고 벼'짚 한 단을 얻어 왔겠소 참…》

장에 떠나려고 짚신을 무죽에 나누어 꿰매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며 한숨을 쉬는데 밖에서

《어, 거지 새끼 어디 가니?》

하는 황 지주의 아들 병태의 고아대는 소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끊어 놓았다.

병태와 그 사촌 병섭이가 뚜벅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진호에게로 달려 간다.

《머슴 새끼 너 서라는데 왜 가니?》

병태가 코를 훌쩍거리며 주먹을 흔든다.

진호는 밸이 불떡불떡 났지만 뒤'일을 생각해서 꾹 참았다. 진호는 병태를 보기만 해도 눈에서 불이 일군 하였다.

《황돼지》라고 하면 이 양지 마을에서는 욕심쟁이 황 지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놈은 어찌나 고약했던지 우는 애들까지도 《황 지주가 온다》고만 하면 울음을 뚝 그치군 하였다.

콩 밭에서 콩이 난다고 그 아들 병태도 심술이 애비 같고 어쩐지 생긴 것 역시

돼지처럼 두툼한 입술이 앞으로 쑥 나온데다가 귀까지 벌죽하니 늘어졌다.

진호는 마음이 어질다. 원래 할아버지 적부터 대대로 머슴을 살아 오는 진호네는 한 번도 기를 펴고 살아 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진호는 언제나 풀이 죽어 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만만한 성미는 아니였다. 진호보다 두 살 우인 열 다섯 살 난 병태와 그와 같은 또래인 병태 사촌 형제들은 진호를 보기만 하면 《머슴의 새끼》니 뭐니 하면서 여간만 구박하지 않는다.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허출하게 하고 다니다 보니 보기에는 만만해 보였던 것이다.

병태가 눈을 부릅뜨고 을려댄다.

《이새끼, 너 서라면 서지 왜 안 서니?》

《왜 이래? 내가 뭐라던 뭐?》

한대 후려 갈겨 주지 못할 바엔 아예 맞서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진호는 한 마디 툭 쏘아붙이고는 피하려는데 병태와 병섭이가 보란듯이 발 고랑을 툭툭 걷어차며 앞을 떡 막아 선다.

《거지 새끼, 너 이런 신 봤니?》

하며 병태가 왼 발을 흔들어 보인다.

진호가 얼'결에 눈'길을 돌리니 그것은 까마반지르르한 가죽 구두였다. 병태와 병섭은 래일이 명절이라고 새 구두를 신고 뻐겨댔다. 진호는 은근히 자기도 한 번 신어 봤으면 하고 부럽기는 했지만 병태가 노는 꼴이 하도 아니꼬아 눈을 한 번 흘겨 보고는 비껴 서 걸어 갔다.

《야, 거지 새끼가 뺏뺏시리군다.》 하더니만 병태가 구두'발로 진호를 툭 걷어찼다. 그리고는 진호가 나무할 때 신으려고 지게 다리에 매달은 짚 신짝을 나꾸어채서는 《이게 신이야.》 하고 저 멀리 집어 던지고 달아 났다.

자기 뱉 대로 해내지 못 해 진호는 막울상이 되였다.

이를 본 진호 아버지는 낯빛이 흙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푸들푸들 떤다. 어머니는 금시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꺼질듯 긴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못 했다.

진호가 울먹거리며 방안으로 달려 들어

왔다.

《어머니!》 외마디 소리를 지른 진호는 그말 목이 콱 메여 말을 못 한다. 병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어머니, 먹다 만 나물죽 그릇이 눈에 띄여 들자 《…나 고무신 사 달라요.》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가 겨우 일어나 앉으며 진호의 손을 잡고 떨리는 소리로 말한다.

《진호야 네가 아버지, 어머닐 잘못 둔 탓이구나…》

《아니애요. 어머닌 뭐 그러시나요?》

진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태연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진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끝이 눈'굽으로 갔다. 방안에는 납덩이 같이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이윽고 어머니가 얼굴을 아버지에게 돌린다.

《여보, 어서 장에 가셔요. 제발 약은 그만 두구 진호 고무신을 꼭 사 와요.》

진호는 목구멍이 뜨거웠다.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것을 생각하는 진호는 마구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 난 고무신 안 신겠어요. 일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짚신 삼는 걸 배워서 내 손으로 삼아 신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약을 꼭 사 와요, 예?》

《…》 아버지는 대답이 없다.

《여보, 좋은 내가 갔겠어요. 난 진호가 한 번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걸 봤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어요…》

어머니는 축축히 젖은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 본다.

《어머니, 내 걱정은 마셔요. 어서 어머니의 병이 나아야 할 게 안애요…》

진호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애원하듯이 마구 어머니를 흔든다.

이 날 아버지는 짚신을 팔아 어머니의 약과 진호의 고무신을 사왔던 것이다.

진호네 집애서는 몇 대째 내려 오다가 처음으로 고무신 한 켤레를 사왔다. 온 가정에 기쁨이 생겼다.

진호는 처음 한 뒤 달 동안은 잘 때도 고무신을 따로 간직해 두고야 잤다. 하기야 이 고무신이 어떻게 생긴 것이기에…어찌나 고무신에 옴했던지 진호는 자다가도 제꺽하면

《내 고무신이야, 내 고무신이야…》

《병태 새끼가 내 고무신을 가졌어.》

하고 잠꼬대까지 하군 하였다.

그런데 심술이 놀부 찜쪄먹을 황 지주만은 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다.

(흥, 머슴의 새끼 발모가지에 고무신이 다 뭐야?)

그렇지만 진호는 여보란듯이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고무신을 사 온 이듬 해 여름 어느 날이였다.

여름 저녁의 강변은 좋기도 하다!

무덥지 않은 해'빛이 비치는 대기는 투명하고도 온화하였다. 물은 절반 잠자듯 마지 못 해 강'기슭에서 찰랑거린다.

진호는 꼴망태 속에 파 묻힌 채 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진호 새끼야.》

다급히 찾는 소리가 확확 달아 오르는 귀'전을 스쳤다. 온통 감탕 투성이가 된 병태가 씨근거리며 뛰여 왔다.

《여기 내 고무신이…》

끄라서니를 보니 고무신을 신고 게를 잡는다고 감탕을 쑤시다가 감탕 속에 고무신을 빠뜨린 것이 분명했다.

《야, 좀 꺼내 줘 응.》

《보여야 꺼내지 뭐.》

《넌 솟구질을 잘하지 않니? 엉 야.》

그가 너무도 애원하는 바람에 진호는 손에 들었던 고무신을 자기의 토스레 옷에 싸 놓고 강'기슭에 들어 섰다. 발은 대번에 감탕 속으로 빠져 들어 갔다. 진호는 달팽이처럼 허리를 까부리고 여기 저기 파다 말고

《병태야, 어딘지 모르겠어.》 하며 허리를 폈다. 순간 진호는 깜짝 놀랐다.

병태가 자기의 고무신을 신고 벌떡 일어서는 게 아닌가?!

《병태야, 그건 내꺼야!》

《뭐야? 이건 내 고무신이야.》

병태가 위협하듯이 바른 눈섭을 치켜 올린다. 이거야말로 정말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이 아닌가?! 병태는 진호를 밀어 던지고 집을 향해 냅다 뛰기 시작하였다.

진호는 벨이 꿈틀했다.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진호는 두 주먹을 발끈 부르쥐고 뒤따라 간다. 잡히기만 하면 당장 찢어 죽일듯한 기세다. 병태는 집 앞뜰 끝에서 진호의 손아귀에 잡히고 말았다.

《이 돼지 같은 새끼야.》

진호는 성난 김에 병태의 따귀를 철석-갈겼다. 순간 병태의 눈에서는 불이 번쩍하였다. 진호는 또 한 번 주먹을 안겼다. 비칠거리던 병태는 퍽 하고 꼬꾸라졌다.

하기야 암만 자기보다 두 살 아래라고는 하지만 걸음마를 떼자부터 일로 잔뼈가 굵어 오는터라 그까짓 병태 쯤은 사실 문제가 아니였다.

지난날, 아니 조금 전까지만도 병태 말이라면 절절 매던 진호가 이제는 해 볼테면 해 보자는 배'심이다.

여지껏 쌓이고 쌓였던 원한이 한꺼번에 되살아 오르자 진호의 눈에서는 불'빛이 번득였고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끓어 올랐다.

《이 놈의 새끼, 우리가 바보가 돼서 머슴을 사는 줄 아니.》

진호는 병태가 접어들기만 하면 당장에라도 때려 눕힐 기세다.

병태도 성이 날 대로 났다. 여지껏 자기가 쥐락 펴락하던 《거지 새끼》에게 맞는다고 생각해서인지 코를 훌적거리며 대든다. 진호는 병태의 면상을 쥐여 박았다. 병태가 《으-으악》하며 뒤로 자빠지자 진호는 병태를 깔고 앉아 마음껏 쥐여 박는다. 어디선가 이를 본 황 지주가

《어 어, 어데 사 사람 없느냐?!…》

하고 미친 사람처럼 헤덤비며 뛰여 나온다. 황 지주의 죽어 가는 소리에 돼지 두엄을 파 내던 진호 아버지도 뛰여 나온다. 황 지주는 제새끼를 깔고 앉은 진호를 지팡이로 내리친다. 진호는 한 대 얻어 맞고 잽싸게 일어 섰다. 그를 모르고 황 지주는 또다시 련거퍼 지팡이를 내리쳤다. 네댓대 때리고야 제아들을 때렸다는걸 안 황 지주는 가슴을 잡아 뜯으며 더욱 죽는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는 진호에게로 달려 든다. 제 애비가 나타나자 힘을 얻은

병태가 비칠비칠 일어나 눈알을 비비며 고무신을 뺏으려 한다.

《진호 새끼가 내 고무신을 가졌어.》

《뭐야?!이새끼 너 뒈져 보겐?응.》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쥔다. 게는 게편이 라고 황 지주가 새끼 편을 든다.

《아무렴, 우리 병태 고무신이 분명하지.》

《이 날도적놈아, 뭐가 어쨌다구?작년에 짚신 두죽 반을 팔아서 사온 거다.》

《뭐, 뭐라구?작년에 사왔다는 게 이렇게 새 고무신이야?》

승냥이 심'보를 가진 황 지주는 《머슴》 앞에서 지고 싶지 않았다. 진호 아버지의 눈에서는 불'빛이 튀였다.

병태가 또 진호에게로 대들었다. 진호는 날쌔게 자리를 피하며 새끼 승냥이를 받아 넘겼다. 병태는 저만큼 시궁창에 벌렁 나 자빠졌다. 병태는 푸-푸-하며 상판으로 흘러 내리는 시궁창 물을 쥐여 뿌리며 발버둥을 친다.

그러자 옆에서 거만을 빼고 섰던 황 지주는 상판이 먹장처럼 되며 벌벌 떨다가 끄부랑 지팽이로 진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아버지!》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진호가 쓰러졌다. 자기의 고무신을 꼭 껴안은 채 마당'가에 쓰러진 진호의 파랗게 질린 입술에서는 '떨리는 소리가 흘러 나왔다.

《…아버지!이건 아버지가 어머니 약 값으로 사다 준 거예요…》

아버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듯 했다. 아버지는 성난 사자처럼 달려 들어 황 지주를 엎어 놓았다. 그리고는 떡 치듯 짓'이겨 놓았다. 진호 아버지는 당장 숨이 넘어 가는듯 꾸르륵거리는 놈의 더러운 상판에 퉤 하고 침을 뱉았다.

× ×

그로부터 닷새째 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주재소에서 반죽음이 된 진호 아버지를 등에 업어 내 왔다.

아버지는 천추에 씻지 못 할 원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는 기막힌 시각이 조여들고 있였다. 아버지는 진호의 손목을 잡고 마지막 말을 했다.

《…진호야, 네가 병태놈을 때며 눕힌 것은 참 잘했다. 지주놈들이 있는 세상에선 잘 살 수 없다. 너는 아버지가 왜 죽는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아버지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

그 해 찬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마가을!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 동생을 데리고 알몸으로 정처 없는 류랑의 길을 떠났다. 그러나 가면 어딜 가랴!

살아서 발 붙일 곳 없고 죽어서 누울 곳 없는 땅, 가는 곳 마다 일제와 지주놈들이 살판을 치는 세상, 그 어디로 간들 나으랴만…

진호는 황 지주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부르짖었다.

《아버지의 원쑤를 꼭 갚고야 말테다.…두고 보자…》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 가시밭을 헤치며 걸어 나갔다.

식사할 때

제 2 분단 교실에서는 뜻하지 않은 비상 사고가 생겼습니다. 점심 시간에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온 정수가 갑자기 먹은 것을 막 토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쓰리다고 배를 그러쥐고 야단이였습니다.

분단에서는 꼬마 진료소에 가서 꼬마 의사를 불러 왔습니다. 꼬마 의사는 정수의 몸을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의사—점심 먹은 것이 체했구나. 점심에 뭘 먹었니?

정수—밥 밖에 먹은 것이 없어.

꼬마 의사—넌 속이려는구나. 의사 앞에서야 바루 대야 치료를 제대로 할게 아니냐?

《정말이야, 바로 대렴 정수야!》동무들이 하는 말에 정수는 이윽고 입을 뗐습니다.

정수—사실은 점심을 먹구 나오는데 삼촌이 추리를 사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배 부른 줄 모르고 대번에 여라문개를 먹었지. 그리구 오던 길에 또 얼음 과자를 사 먹었어.

꼬마 의사—보려므나, 그러니까 체할 수 밖에 없지. 맛 있는 음식이라구 해서 단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 위라는 것은 일정한 량만을 받아서 소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갑자기 많은 음식을 콱 먹으면 위가 제대로 운동을 못하거던. 그래서 식체에 걸리게 돼. 그러기 음식은 언제나 마츰이 먹어야 해.

꼬마 의사는 정수에게 약을 먹이고 나서 분단 동무들을 둘러 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동무들 속에서 일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식—그럼 식사 규칙에 대해서 좀 말해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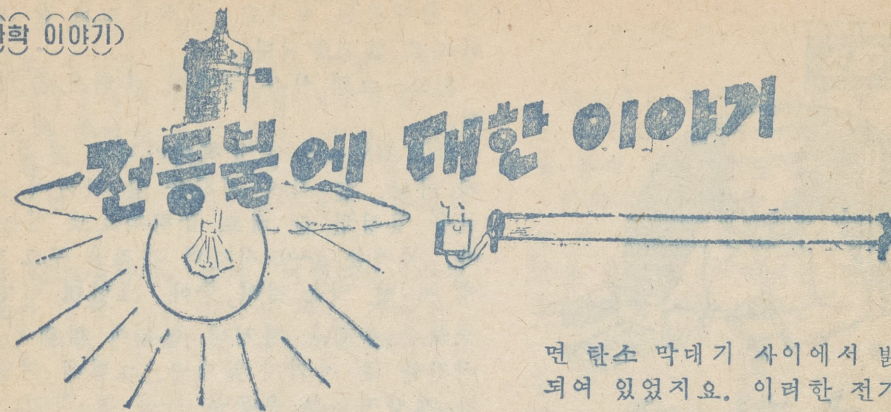
꼬마 의사—식사 규칙이라니까 뭐 특별한게 아냐. 늘 식사 시간을 잘 지켜서 음식물을 일정한 량 대로 규칙적으로 먹는 거야. 식사는 4~5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하루에 세 번 먹는 것이 좋아. 그런데 어떤 동무들은 늦잠을 자거나 놀음에 취해서 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던. 그렇게 되면 위가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위장병이 걸리게 되는거야.

그리구 음식물을 먹을 때는 덤비지 말고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한단다.

희숙—음식은 몇 번이나 씹어야 하니?

꼬마 의사—적어도 50~90 번 쯤은 씹는 것이 좋아. 그래야 위장에 들어 가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충분히 몸에 흡수 된단 말야.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음식물을 가려먹지 말아야 해. 우리들이 몸을 튼튼히 키우구 항상 씩씩하게 활동하자면 담백질, 지방, 탄수화물, 광물질, 비타민 등과 같은 영양소가 우리의 몸에 필요하거던.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잘 먹어야 해. 그래야 이런 영양소들을 섭취 할 수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가려먹으면 나중에는 일부 영양소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단다. 비타민 결핍증에 걸리면 가문 눈알이, 곱사등, 각기병과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린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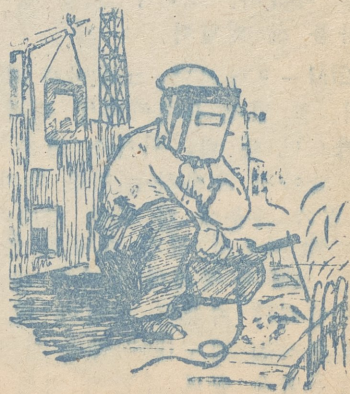
그리구 식사에서 주의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은 매운 것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해, 매운 것을 많이 먹으면 위와 시력이 나빠지거든, 그리구 여름에 쉰 음식이라든가 겨울에 찬 음식을 먹는 것도 나빠!

소년단원 동무들은 모두 주의 해야겠다는듯 고개를 끄떡이는 것이였다.

전락희

어느 날 밤이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숙제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것을 기특하게 보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너희들은 참 좋은 세상에 태여났다. 옛날 같으면 공부도 공부려니와 어디 저렇게 환한 불을 켜고 살았니…》 하고 못내 감탄하는 것이였지요. 나는 정말 그 때까지 전등'불이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또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요. 나는 할머니 말씀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 옆에서 책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전등'불을 사람들이 언제부터 리용하게 되였으며 또 전등'불이 없을 때에는 어떤 불들을 켜고 살았는가를 물어 보았지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전등'불에 대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 주셨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인 1802년에 로씨야의 와실리 울라지미르 뻬뜨로브 선생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전지를 리용하여 탄소 전극들 사이에서 밝은 빛을 얻어 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불을 켜는 조명용으로 리용하기에는 부족하였지요. 그러던 것이 1876년에 와서야 로씨야의 발명가 뻬엔 야블로츠끄브가 뻬뜨로브에 의하여 발견된 전호를 거리나 방안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냈답니다. 전호등은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탄소 막대기에 전기를 련결하면 탄소 막대기 사이에서 밝은 빛을 내게 되여 있었지요. 이러한 전기 불꽃 현상을 우리들은 흔히 건설장에서 볼 수 있지요. 기중기가 육중한 블로크를 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용접공 아저씨는 블로크를 전기 용접으로 재치 있게 붙여 놓는다. 이 때 용접하는 곳에서 밝은 불'빛이 나는 것을 우리들은 흔히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호랍니다. 물론 전호등은 우리들이 지금 편리하게 리용하고 있는 전등과는 그 모양도 다르고 또 불을 비치는 리치도 다르고 그리 편리한 것은 못 되였지요. 그러나 그 때까지 어두컴컴한 초'불이나 석유등'불에 비하면 그것은 몇 배나 나았지요.

현재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가열 전등은 1873년에 로씨아의 아.엔.로디긴이 발견하였답니다.

미국인 에디손은 1877년에야 로디긴이 발견한 가열 전등의 리치를 알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천 번의 실험을 거듭한 결과 1880년에 와서야 비로소 오늘과 같은 전구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답니다.

전구는 공과 비슷한 모양의 유리알과 전기를 끌어 들이기 위한 줄이 전극과 전극들을 서로 련결하여 불이 환하게 켜지는 금속 줄로 되여 있지요.

그런데 처음 전등을 만들었을 때에는 금속줄이 아니라 탄소로 만든 가는 줄이였다합니다. 탄소줄은 그리 밝지도 못하고 또 오래 쓸 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오늘과 같은 탕그스텐으로 만든 가는 줄을 쓰게 되였다지요. 탕그스텐은 300 도 이상의 열을 가하여야 비로소 녹기 시작하는 아주 단단한 금속이기 때문에. 전등'불이 켜지는 부분으로서 사용하게 되였답니다. 그리고 유리 속에서는 공기를 말끔히 빼내야 한답니다. 공기를 뽑지 않으면 탕그스텐줄이 녹아 끊어지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드니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이였지요.

이렇게 편리한 전등'불도 일본놈들이 우리 나라를 빼앗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전등'불을 사용할 수 없었답니다.

그 때에는 농촌에서는 광솔'불이 아니면 피마주 기름을 켰고 고작 낮대야 석유등'불을 켰답니다.

그러나 일본놈들이 쫓겨 가고 우리 나라가 해방된 후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로 발전소가 곳곳에 더 많이 일어 서고 나라의 전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여 지금에 와서는 어떤 드메산'골에서도 모두가 다 밝은 전등'불을 켜고 살게 되였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정말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그 얼마나 행복한가를 다시금 느끼게 되였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하여 새로운 전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사용하고 있는 전등은 빛을 내는 이외에 쓸 데 없이 전기를 많이 잡아 먹게 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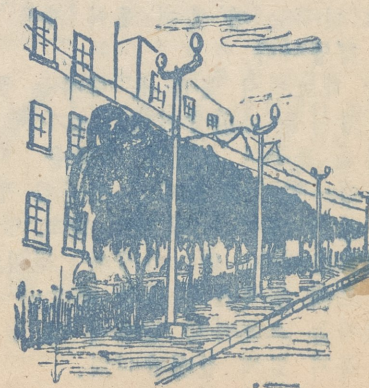
즉 전기의 7퍼센트만이 빛으로 변하고 나머지 93퍼센트는 열이나, 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다른 광선으로 변해 버린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전기를 적게 들이고도 더 밝은 수은등과 형광등을 만들어 냈답니다.

광장이나 가로, 상점들에 새로 나타난 희고도 밝은 빛을 내는 전등이 바로 수은등과 형광등이랍니다.

수은등은 낮과 같은 밝은 빛을 낼 뿐만 아니라 보통 전등에 비하여 2~3배나 더 밝고 또 오래 쓸 수 있답니다.

왜 수은등이라 부르느냐고 물었더니 전등 안에 수은 가스를 넣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들이 상점이나 식당에서 볼 수 있는 길다란 전등이 형광등인데 형광등은 보통 전등보다 4배 가량이나 더 밝고 또 2~3배나 더 오래 쓸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형광등이라고 이름을 단 것은 전등의 안쪽에 빛을 내는 물질 즉 형광 물질(수소린산 칼슘, 산화 안티몬, 불화 칼슘, 염화 칼슘의 혼합물)을 발랐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들의 생활에서 보배로 되고 있는 전등을 더 효과 있게 리용하고 더 아껴 써야 하겠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였습니다.

신기한 애기벌

미자는 꽃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는 집 정원에 화단을 꾸렸는데 여기에는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각색 꽃들이 다 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 꽃밭에 물을 주면서 정성들여 가꾸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죠로를 들고 꽃밭에 물을 주려 나왔던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해도 싱싱 자라던 백일홍 두 포기가 새들새들 시들지 않았겠습니까. 참 아쉬운 일이였습니다. 꽃망울이 부풀어 올라 당장 피게 되였던 꽃나무가 시들어 죽어 가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미자는 백일홍 대목 밑 흙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뿌리목 부분을 뚝 잘라 놓은 것이였습니다. 찬찬히 들여다 보니 벌레가 자른 것이 틀림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 드렸더니 돛벌레의 장난이라는 것이였습니다. 돛벌레는 밤에만 나와서 잘라 먹고 낮에는 땅 속에 들어 가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 학교에서 돌아 온 미자는 꽃밭에 돛벌레 잡이를 나갔습니다. 그가 한창 꽃포기 밑을 들추어 돛벌레 사냥을 하는데 어디서 앵—하더니 허리가 잘룩한 벌 한 마리가 날아 와서 꽃에 앉지 않고 땅 우에 내려 앉았습니다. 참 이상한 벌입니다. 그래서 본래 동식물에 대한 관찰을 즐겨하는 미자는 오도카니 앉아서 그 벌의 움직임을 흥미 있게 살폈습니다.

그 벌은 무엇을 찾는듯 처음에 땅에 있는 작은 구멍에 들어 갔다가 나오더니만 또 그 옆 돌밑으로 쏙 들어 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번에는 흙덩어리 틈사이로 들어 가서 한참이 되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흙덩어리를 살그머니 들었습니다.

(어마나!)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시껌한 돛벌레가 몸을 동그라니 구부리고 있는데 그 우에 그 벌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자는 흠칠 놀라면서 손에 들었던 흙덩어리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벌은 앵—하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자는 그것이 너무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여 그 돛벌레를 죽이지 않고 그냥 잡아 가지고 들어 와서 흙을 넣은 통 속에 두고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돛벌레의 몸에서 껍질을 뚫고 아주 작은 벌레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돛벌레는 죽고 말았습니다. 돛벌레의 몸에서 나온 작은 벌레는 곧 번데기가 되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글쎄 그 번데기 속에서 바로 그 돛벌레 우에 와 앉았던 벌과 꼭 같은 벌이 생겨 나지를 않았겠습니까.

미자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그 벌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찾아 갔습니다. 미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신 선생님은 싱글벙글 웃으시더니 미자는 정말 훌륭한 관찰을 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벌의 이름은 애기벌이라는거야, 애기벌은 벌레나 번데기 또는 곤충 알 속에다 자기의 알을 낳아서 새끼를 친단다.

그 때 미자네 꽃밭에 왔던 애기벌이 구멍과 틈 사이를 드나드는 것은 알을 낳기 위해서 벌레를 찾던 길이예요. 그러다 마침 돛벌레를 만난 애기벌은 자기의 배끝에 있는 뾰족하고 긴 침을 돛벌레 몸에다 찔러 놓고 알을 낳았던 것이예요.

돛 벌레다 알을 낳는 애기벌

알은 돛벌레 몸 속에서 벌레로 까져 나와서 돛벌레의몸을 파 먹으면서 자라나다가 번데기가 될 무렵 돛벌레 껍질을 뚫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애기벌은 우리에게 꿀은 못 주지만 이와 같이 꽃이나 곡식에 해를 주는 나쁜 벌레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리로운 벌이지요.

애기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벌레에 알을 낳아서 청벌레를 죽이는 애기벌, 옥수수'대 속에 사는(옥수수'대충)벌레가 될 알 속에다 자기의 알을 낳는 애기벌, 송충 알 속에 자기의 알을 낳는 애기벌, 진디물 속에 알을 낳는 애기벌 등 례를 들자면 이 밖에도 많아요…》

미자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꽃나무와 곡식 등 우리에게 리로운 식물을 갉아 먹고 사는 나쁜 벌레를 죽이는 애기벌을 잘 돌보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화초 뿌리들의 겨울 내기

다리아, 홍초, 그라지오라스 등은 여러 해 사는 화초로서 구근(둥근 뿌리)에 의하여 번식된다. 때문에 다음 해에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는 이 구근들을 제때에 땅에서 캐여 내여 잘 보관하여야 한다. 여러 해 사는 화초는 추위에 잘 견디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것도 있다.

추위에 견디는 다년생(여러 해 사는것)화초는 겨울 동안 바깥에 그냥 두어도 된다. 그러나 다리아, 홍초, 그라지오라스 같은 것은 추위에 견디지 못 하는 화초이므로 겨울에는 반드시 걷우어 들여야 한다.

다리아는 추위에는 아주 약한 식물이다. 온도가 섭씨 0 도만 되여도 벌써 피해를 본다. 때문에 다리아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10월 말까지는 뿌리를 모두 캐내야 한다. 다리아를 캘 때는 먼저 줄기를 밑으로부터 5~10 cm 정도 남기고 웃부분을 칼로 잘라 버린다. 다음에는 다리아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곁의 흙을 파제끼고 삽으로 뿌리 밑을 둘춰 놓고 손으로 전체 뿌리를 동시에 든다. 이렇게 한 다음 뿌리 사이 흙을 손으로 턴다. 그래 가지고 뿌리를 며칠 동안 그늘에서 말리운 다음 저장고에 보관한다. 저장고 안의 온도는 5°c 습도는 80~90 %로 보장하여야 한다. 저장고에는 공기 구멍이 있어야 하며 겨울 동안에 뿌리가 상하지 않는가 자주 살펴 보아야 한다. 만약 병든 것이 나타나면 곧 .처리하여야 한다.

그라지오라스

홍초는 첫 서리가 내린 다음에 잘 드는 칼로 줄기를 밑으로부터 5~10 cm 정도 남기고 잘라 버린다음 삽으로 뿌리를 캐여 낸다. 이 때 뿌리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뿌리에 상처가 생기면 곧 재나 류황 가루를 발라 주어 썩지 않게 해야 한다. 땅에서 뿌리를 캐낸 다음에 5~10°c 되는 곳에 겨울 동안 보관한다. 이 때 뿌리는 너무 마르지 않아야 된다.

그라지오라스는 다리아보다 좀 늦게 10 월 말에 캐 낸다. 그라지오라스는 자구(작은 새끼알)들이 많으므로 파 낼 때 주의하여야 한다. 이 자구는 보통 한 포기에 수십 개 달리게 되는데 다 캐내야 한다. 캐 낸 것은 약 5 일 가량 바람이 잘 통하는 데서 말리워 저장고에 보관한다.

저장고의 온도는 5~10°c 습도는 70~80 %로 보장되여야 한다. 보관시에 자주 들추어 주어 공기가 통하게 해야 한다.

(작문)

꽃들의 자랑

동무들 가운데 누가 영희네 집에 갔던 일이 있습니까. 영희네 집 대문을 찌르릉 열고 들어 서면 아름다운 각색 꽃들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반갑게 맞아 준답니다. 빨간 봉선화, 백일홍, 채송화, 월계꽃, 함박꽃 여러 가지 꽃들이 곱게 피여 난답니다. 이 많은 꽃송이 우에는 벌과 나비들이 앉아서 단꿀을 빨며 무슨 이야기인지 재미 있게 속살거립니다.

영희가 가꾼 꽃들은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슨 이야기일가요? 누가 한 번 알아 맞춰 보세요. 아마 성미 급한 어떤 동무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꽃속에 무슨 이야기가 깃들어 있담 아마 저희들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뽐내는 이야기겠지.》

그러지 말고 한번 꽃들에게 슬쩍 물어 보세요.

《애 이 예쁜 꽃들아 그래 너희 꽃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 있나?》

그러면 꽃들은 방실방실 웃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니?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므나. 영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을 찾는단다. 밤 사이 다치지나 않았나 살펴 본단다. 만약 한 포기라도 시든 것이 있으면 땅을 파 보고 나쁜 벌레를 잡아 준단다. 우리들이 잘 자라면 손벽을 치며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한단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착한 영희를 기쁘게 해 주려고 더 곱게 피여 난단다.》

이것이 영희네 집 뜰앞에 피여 난 고운 꽃들이 간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야기랍니다.

개성 만월 중학교
중등반 3학년 림 순복

(동요)

우리 누나 선반기

우리 누나 선반기 민청호 선반기
오늘도 쉴새 없이 돌아 가지요
우리 누나 선반기 돌아 갈 때면
번쩍번쩍 새기계 깎기워 나오죠.

우리 누나 선반기 민청호 선반기
우릉우릉 돌고 돌면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온갖 기계 다 깎으며 선반기는 노래해요.
세상에 부럼 없는 우리 조국 자랑해요.

기계 깎는 우리 누나 민청원 누나
5차 대회 맞으며 쉴새 없이 일해요
날마다 계획과제 넘치여 해요.

개성 소년 회관 문학 연구 소조원
중등반 3학년 리 형배

(동시)

양키놈은 묵사발이 되고 말리라

창공에는 오색 기'발 펄펄 날린다.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응원 소리 박수소리 울려 퍼진다.
오늘은 즐거운 체육 대회 날.

기쁨으로 들끓는 우리 학교 운동장
두 발 가진 승냥이 양코배기 미국놈
대갈통 까부시는 경기가 벌어진다.

모자 채양 슬쩍 뒤로 돌리고
시퍼런 도끼를 한 손에 틀어 쥐고
미국놈을 노려보며 달려 나간 영남이
양코배기 상판을 도끼'날로 후려친다.

—아버지를 빨갱이라 몽둥이로 매질하고
시뻘건 쇠꼬치로 가슴팍을 지지던 놈
아버지를 끝끝내 생매장한 양키놈.

지금도 우리 조국 남녘 땅에서
우리 동무 자동차로 깔아 뭉개고
나물 뜯는 어린 아이 쏘아 죽인 놈
피비린 칼부림 일삼는 승냥이—

이놈아 서리비낀 내 도끼를 받아라.
영남이는 입술을 지근 물고서
양코배기 가슴팍에 도끼'날을 안긴다.

삐죽코 휘두르며 기름진 배 디룩대며
운동장 한복판에 버티고 섰던
승냥이 몸뚱이는 토막이 났다.

죄 없는 아버지를 생매장한 원쑤야
총칼로 남북을 갈라 논 미군놈아
살인 무기 걷어 안고 물러가지 않으면
네놈들은 묵사발이 되고 말리라

창공에는 오색 기'발 펄펄 날린다.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오늘은 즐거운 체육 대회 날

개성시 만월 중학교
중등반 3학년 한 석진

(실험해 보시오)

바늘이 물 우에 뜨겠는가?

동무들은 바늘이나 돈 (1 전 짜리)을 물 우에 띄울 수 있다면 의아적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여 보십시오.

곱뿌에 물을 담고 성냥곽 너비만한 종이(물에 인츰 젖지 않는 종이)를 놓고 그 우에 바늘을 놓으시오. 다음에 송곳 같은 것으로 조용히 종이를 눌러 물에 깔아 앉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때 바늘은 물 우에 떠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가요?

돈이나 바늘은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표면에 아주 얇은 기름층이 덮여 있게 됩니다. (손때) 그렇기 때문에 바늘 밑에 있는 물은 아래로 눌려 있게 됩니다. 이 때 바늘 아래 물은 평평해지려고 바늘을 우로 올려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늘이나 돈은 물 우에 뜨는 것입니다.

종이
바늘

(만화)

홍 길 동 (제10회)

신 구 현

(122) 《앉으시오!》 길동은 여덟 장수에게 명령하고 차근차근 말하였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대들의 마음 실로 거룩하오. 우리는 용감히 싸워서 간악한 놈들을 적잖이 처단했고 병조 판서의 벼슬까지 했소. 그러나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백성들의 생활도 전과 다름 없소. 그리고 병조판서는 빛 좋은 개살구요. 이것은 우리 힘이 아직 약하다는 증거요…》

(123) 《활빈당》의 힘이 약하다는 말이 마음에 안겨 오지 않아 치백이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행수의 재주 놀라우시고 영웅 호걸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있고 백성들 우리를 도우니 우리의 힘 어찌 약하다 하리까?》 길동은 얼굴의 웃음을 지으며 엄숙하니 말하였습니다. 《우리 일이 나의 재주나, 몇몇 장수들의 힘이나, 각성된 몇몇 백성들의 도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온 나라 백성들이 떨쳐 나서 우리와 함께 간악한 놈들을 반대하여 싸우지 않고는 되지 않소. 생각들 해 보시오. 백성들은 거의 다 신세 한탄만 하지, 못 사는 까닭이 부자와 관리놈들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며 따라서 그들을 미워하며 반대해서 일어 설 줄을 모르오. 이것이 결국은 우리 힘이 아직 약하기 때문이요.》 길동은 더는 말을 하지 않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였습니다.

(124) 《옳은 말씀이라 아뢰오!》 치백이도 포함하여 여덟 장수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길동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길동은 대답하였습니다. 《조선서 머잖은 곳에 률도국이라는 섬 나라가 있소. 섬 나라를 살기 좋은 백성들의 나라로 꾸리자는 것이요.》

여덟 장수들은 깜짝 놀래며 《고향 산천을 버리고 타 고장으로 떠나 가자는 말씀이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소! 백성들의 나라를 꾸려 놓고 조국의 백성들을 몽땅 옮길 작정이요. 그러면 조국에는 량반 부자놈들만 남을 것이고 굶어 죽든가 백성이 되여 결국은 량반 부자가 없는 나라로 되고 말 것이요. 그때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 온단 말이요.

(125) 길동의 훌륭한 생각을 여덟 장수들은 찬동해 나섰습니다. 길동은 무척 기뻐서 계속 말했습니다.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률도국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오. 우리 나라가 어지러운 짬을 리용해서 왜적들은 침략의 흉계를 꾸미고 있소. 률도국은 일본으로 통하는 길목이여서 왜적들의 형편을 잘 살필 수 있고 만일 그들이 쳐들어 오면 도중에서 맞받아 칠 수 있는 곳이요…》

(126) 《그러면 도화동도 버리고 간단 말씀이요?》 안타까이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길동은 손을 내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도화동은 버릴 수 없습니다. 도화동은 우리의 심장과 같은 곳이며 우리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곳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일부는 이 곳에 남아야 하고, 할아버지 근력이 정정 하시니 내가 없는 동안 일을 맡아 보셔야 합니다…》 길동의 생각은 도화동 사람들을 기쁨과 흥분에 싸이게 하였습니다.

(127) 길동은 병조판서의 차림으로 도화동의 삼천명 영웅 호걸들을 거느리고 인천에 이르렀습니다. 길동이 조화를 부리니 선들선들 샛바람에 삼백 척 크나큰 돛배들이 인천 앞 바다로 모여 들었습니다. 배마다에는 량식이 가득이 실려 있었습니다. 삼천명 영웅 호걸들이 노래 부르며 떠나갑니다. 갈매기떼들이 쌍쌍 배 우를 훨훨 나래칩니다.

(128) 산아산아 삼각산아 잘 있거라
수야 수야 한강수야 다시나 보자
에헤야 에헤야 에헤에헤 에헤요
우리 장수 가시는 데 광명이 비치네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가고요
갈매기 가는데 우린들 못 가랴
에헤야 에헤야 에헤에헤 에헤요
우리 장수 가시는 데 광명이 비치네

보름에 한 번씩 편지나 말고요
석 달에 한 번씩 왔다나 갑시다
에헤야 에헤야 에헤에헤 에헤요
우리 장수 가시는 데 광명이 비친다.

⑫⑨ 길동이 일행은 사흘만에 제도섬에 다달았습니다. 길동은 제도섬 칠백 리 기름진 땅을 여덟 개 부락으로 나누어 치백이, 홍갑이, 팔업이 등 여덟 장수들을 매개 부락 책임자로 정하고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사짓기와 군사 훈련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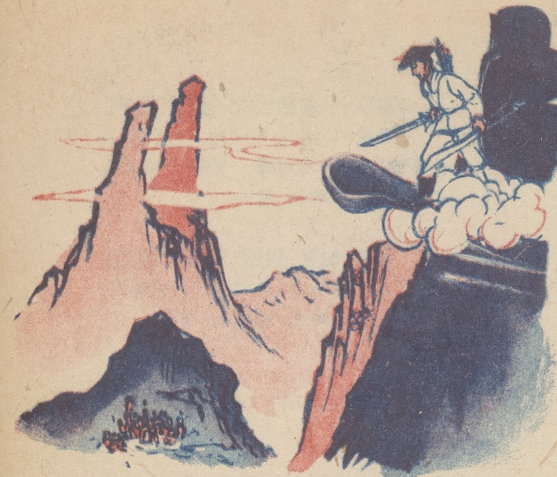
제도섬은 삼 년 동안에 살기 좋은 섬으로 변하였습니다. 제도섬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 갔습니다.

⑬⓪ 제도섬에서 머잖은 곳에 율동이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망탕산이라는 험한 산이 있는데 율동이라는 흉악한 무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행동은 짐승과 다름 없었습니다.

평지에는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율동이라는 짐승 때문에 피해가 심하였습니다.

⑬① 하루는 율동섬에서 백룡이라 하는 사람이 급히 배를 저어 길동을 찾아 왔습니다. 외딸을 두었는데 인물과 재주가 비상한데다가 글도 잘 하고 검술도 잘 해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른 새벽에 갑작스레 율동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잡아 갔답니다. 백룡은 율동의 무리들을 내치고 자기 딸을 찾겠는데 도와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⑬② 길동은 쾌히 승락하고 백룡을 돌려 보내고 망탕산을 향하여 멍석을 불러 타고 떠 갔습니다. 산 중턱에 내리여 살펴보는데 바로 산 아래서 조잘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야기에서 듣던 율동의 무리인 것이 틀림 없습니다. 어데서 몰아 왔는지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느라고 야단들입니다.

⑬③ 이제 놈들을 잡아 없애리라 결심한 길동은 그 중 한 놈을 활로 쏘니 소리를 지르며 달아 납니다. 다른 놈들도 허둥지둥 뺑소니를 치는데 그 중 한 놈만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길동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율동이 아니라 보통 백성이였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길동은 그에게 달려 갔습니다.

⑬④ 〈어떤 인간이기로 짐승의 무리와 더불어 백성들의 소를 해치는고?〉

길동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율동섬에 사는 조선 사람으로 오늘 이른 새벽에 밭을 갈고 있었는데 소와 함께 잡혀 왔소. 저걸 좀 보시오〉백성은 무참히 나자빠진 소를 가리키며 길동이 아니였더라면 자기도 저 소와 같이 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길동은 율동의 소굴을 물었습니다. 산중턱 큰 굴이 바로 율동의 소굴이라는 것과 화살에 맞고 도망친 놈이 율동의 우두머리며 그 놈이 아침에 어여쁜 처녀를 잡아다 가두어 두고 잔치 준비에 눈코 뜰 새가 없다고 백성은 이야기하였습니다.

⑬⑤ 이런 짓을 꺼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니 백성들을 괴롭히는 본국의 부자놈들이 바로 율동과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되였습니다. 분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길동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잡아 치우리라〉 길동은 결심하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율동의 무리를 그 소굴로 기여 들어 가게 하기 위하여 모래 섞인 비가 막 쏟아지게 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속담

△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생활이 좋아지니까 자기의 어렵던 과거 처지를 잊어 버리는 자를 풍자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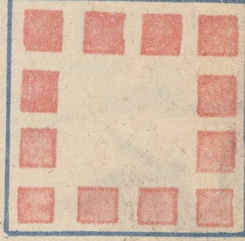
△ 가을 식은 밥이 봄 량식이다.
(넉넉하다고 함부로 랑비하지 말고 절약해야 한다는 말)

현상 문제

①옥순이네 반원 10명은 어느 날 마스껨을 조직하였어요. 한 줄에 네 명씩 다섯 줄로 되는 마스껨을 만들었어요. 어떤 형으로 만들었을가요?

(인민반)

②그림과 같은 실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위원회에서는 영식이에게 이미 수확이 끝난 도마도 밭과 가지 밭은 말고 나머지 밭을 빨리 한 바퀴 돌아 보고 오라는 위임을 주었습니다. 빨리 돌려면 통과한 곳은 다시 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돌았을가요?

(중등반)

8 호 현상 문제 해답

8 호 현상 문제 당선자들

평양시 태성구역 대성 중학교 김 래덕
평남도 문덕군 문덕 중학교 김 성일
평북도 청성군 청성 중학교 김 영식
황북도 봉산군 봉산 중학교 리 원하
황남도 청단군 화양 중학교 박 정자
량강도 부전군 호반 중학교 장 충식
청진시 수남 구역 어항 중학교 김 송률
강원도 법동군 금구 농업 학교 박 광상
자강도 동신군 별호 초등 학원 김 만식
개성시 고려 중학교 설 혜숙

속담 놀이

이 놀음은 누가 많이 속담을 알고 있는가를 경쟁하면서 새로운 속담을 알아 내고 또 그 유래와 뜻을 밝히는 놀음이다. 이 놀음을 통해 새로운 속담을 많이 알게 될 뿐더러 그를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된다.

노는 방법—유희자들이 빙 둘러 앉는다. 누가 먼저 문제를 내놓을 수도 있고 유희 책임자를 미리 정할 수도 있다. 례를 들면 《알고 있는 속담을 모두 말하기》하면 저마다 속담을 댄다. 책임자는 각각 적는다. 이래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동무가 승리한다.

혹은 학습에 대한 속담, 근로에 대한 속담, 우정에 대한 속담, 경각성에 대한 속담, 계절에 대한 속담 등 속담의 주제에 따라 구분해서 말하게 할 수도 있다.

또는 어떤 속담이나 격언을 내놓고 그 유래 또는 뜻을 대게 할 수도 있고 그 속담을 넣어서 단문을 짓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동무에게 《어린 속담 애호가》의 칭호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3년 제10호 (총 168호) 편집 위원회
1963년 9월 25일 인쇄 1963년 10월 1일 발행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330542 값 25 전

아름다운 청봉

② 자랑스런 청봉은 조국의 봉우리
밀림속엔 이야기도 많고 많아요
용진용진 나아가는 발걸음 소리
우리들의 가슴에도 들려옵니다.

③ 변함없이 청봉은 푸르른 봉우리
유격대원 아저씨들 마음 같애요
조국을 사랑하는 높으신 그뜻을
우리들은 길이길이 이어갈래요.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항상 준비!
소년단